

www.gglib.or.kr

2007 | 겨울 | Vol. 03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특별기고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이용자의 행복한 책읽기

남미영 박사님의 독서교육 이야기

공자(孔子)님의 독서방법

현장 엿보기

사서선생님과 함께 읽는 그림동화책

함께가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지역교육청이 손을 잡았어요

행복한 동행

가평에서의 1박 2일, 행복한 동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 · 광주 · 포천 · 김포 · 여주



사시와 오시에 조화로운 겨울 풍경

- E.B. 브러쉬 -

왜든 그 누구보다
우물쭈기 큰 사람이요,
다가오는 세상에 들릴만큼
소리 높여 외치는
오직 한 사람이다.

발행인 권영일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전 화 031_240_4031
 팩 스 031_242_3062
 e-mail webglib@gglib.or.kr
 디자인 디자인하늘소 02_2263_8453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07 겨울 [Vol. 03]

C o n t e n t s

- | | | |
|----|---------------------------------|---|
| 02 | 특별기고 |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 |
| 04 |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 | 사회과학 | 마시멜로 이야기 •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 세계사,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 |
| | 인문과학 | 꽃아 꽃아 문 열어라 • 책력 • (마음을 얻는 지혜)경청 • 무지개 원리 |
| | 문학 | 신도 버린 사람들 • 파피용 •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 오 하느님 |
| | 교육 | 세계 명문 직업 학교 • 내가 만난 아이들 •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하루 15분, 책 읽어 주기의 힘 |
| | 과학 | 행복한 두뇌 •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 뇌와 마음의 구조 • 걸음아 날 살려라 : 장생보법 |
| | 예술 · 취미 | 거장의 노트를 훑쳐다 • 행복을 주는 그림 •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 •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든다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 |
| | 어린이 | 미안해, 친구야 • 안녕히 계세요 • 오늘이 -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
사라진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비밀 • 고안 놀 혼내 주기 •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
아기여우의 친구 만들기 • 나 때문이야 • 천재를 뛰어넘은 77인의 연습벌레들
벤은 나와 조금 달라요! • 안손 씨의 양복 • 작전 1호 : 왕따와 학교폭력 이겨내기 |
| 24 | 이용자의 행복한 책읽기 | |
| 28 | 남미영 박사님의 독서교육 이야기 | 공자(孔子)님의 독서방법 |
| 30 | 현장 엿보기 | 사서선생님과 함께 읽는 그림동화책 |
| 32 | 함께 가는 도서관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지역교육청이 손을 잡았어요 |
| 36 | 행복한 동행 | 가평에서의 1박 2일, 행복한 동행 |
| 40 | 이용자가 선택한 즐겨찾는 책, FIVE | |
| 42 | 찰칵! 책읽는 풍경 | 학교도서관 축제, 그 현장 속으로 go go!!! |
| 43 | 윽터 | 화장실을 WC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
| 44 | 사서가 말하는 도서관이란... 사서가 말하는 사서란... | |

● 특별기고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



고정욱 선생님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많은 작품을
쓰셨습니다.

- 나 때문이야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 첫 단추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 가장 들어주는 아이
- 안내견 탄실이 등



지금까지의 삶도 범생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대학시절의 나는 더 지독한 범생이었다. 성실한 학교생활, 그리고 독서와 창작연습……. 그저 책 속에 길이 있고 공부만이 나의 갈 길이라 여겼다. 유일한 관심사는 실력을 쌓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답답한 믿음뿐.

어느 날 군에서 복학한 선배 한 사람이 내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작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자신이 읽은 좋은 책을 한 권 권했다. 작가의 이름도 어려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안정효 선생이 번역한 그 책의 표지도 범상치 않았다. 검은 바탕에 크게 도드라진 작가 카잔차키스의 실루엣 얼굴. 하지만 나는 그 책을 당장 만나진 못했다. 도대체 그런 그리스 작가의 엉뚱한 책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배는 만날 때마다 나에게 확인을 했다. 그 책 읽었냐고.

결국 나는 책을 구입해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문장을 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도 모르는 마력에 빠져들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새로운 인생경험을 하고 싶은 주인공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폐광을 찾아 그리스에 온다. 그곳에서 그는 비범한 중년의 사내를 만나니 그가 바로 조르바. 한 마디로 범생이와 문제아의 만남이었다. 인생의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상상도 못하는 주인공에게 조르바는 위태롭고 자유분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업이고 신의고 뭐고 그에겐 없었다. 범생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다. 이어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그를 충격에 몰아넣게 된다.

조르바는 그런 그를 자유로움으로 이끄는 존재였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고 계획이나 성공 등과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순간과 현재를 즐기는 태도는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야성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 우주와 소통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노래했다. 책장을 덮으며 1급 장애인인 문학청년은 진한 감동을 받았다.

불운하게도 나는 어렸을 때 걸린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소아마비의 막차를 탄 셈이다. 그 후 내 의지로 단 1미터도 걸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걷는 것이 일상인 비장애인들은 그 느낌이 어떤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문학을 통해 자유를 구가하고 싶었다. 장애로 인해 억압받은 삶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동화를 쓸 때 거의 모든 작품에 장애인을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주제도 장애인을 위한 것들로 국한했다. 이 세상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해왔던 내 삶의 작은 결론이기도 하다.

아무튼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를 다녔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92년에는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어 오늘날까지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겉보기엔 범생이 작가의 삶이다.

그러나 나는 문학을 통해 자유를 구가하고 싶었다. 장애로 인해 억압받은 삶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동화를 쓸 때 거의 모든 작품에 장애인을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주제도 장애인을 위한 것들로 국한했다. 이 세상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해왔던 내 삶의 작은 결론이기도 하다. 그것은 범생이의 삶을 살기만 했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다. 때론 거칠게 때론 강력하게 운명에 저항하며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 건 바로 조르바가 늘 내 곁에서 격려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어른들이 살아온 지난 시절은 장애인들을 놀리고, 비하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때였다. 그러한 이들이 커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역시 그렇기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보다 개선시키는 일은 한 두 가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가당치 않은 노력이며 당돌한 생각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도 있다. 동료 작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써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점에 나가봐도 장애인의 날 정도 되면 아예 한 매대가 장애인 관련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물론 거기엔 내 작품도 많지만 다른 동화작가들이 쓴 작품도 많다. 이제 그야말로 장애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나도 그러니 힘이 나고 외롭지 않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작가들이 부지런히 싸워 줄 테니 말이다. 어린이들도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장애인 친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희생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은 생각을 바꾸게 된다. 삶에 또 다른 대안이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몸을 던진다. 전 재산을 투자한 광산의 케이블 리프트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조르바와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한다.

나도 이 땅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하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소설가

고정욱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추천도서

추천기간: 2007. 9. ~ 2007. 11.

순서	분야	주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추천인
01	사회과학	자기계발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한국경제신문사	일반	중앙 강선주
02		상상력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임헌우	나남출판	일반	중앙 김정미
03		세계사	세계사,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크리스 브래지어	이후	일반	김포 김지연
04		소비자학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	김난도	미래의창	일반	광주 김지은
05	인문과학	우리신화	꽃아 꽃아 문 열여라	이윤기	열림원	일반	중앙 허춘자
06		책읽기	책력	안상헌	북포스	일반	포천 이미경
07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조선영, 박현찬	위즈덤하우스	일반	평택 박은동
08		긍정적사고	무지개 원리	차동엽	위즈앤비즈	일반	중앙 김충희
09	문학	인권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다브	김영사	일반	평택 박혜영
10		희망	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일반	중앙 함은경
11		에세이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마음산책	일반	여주 김상미
12		역사	오 하느님	조정래	문학동네	일반	포천 윤정화
13	교육	직업학교	세계 명문 직업 학교	동아일보 국제부	동아일보사	청소년	중앙 함은경
14		자녀교육	내가 만난 아이들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일반	포천 권효진
15		요리사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한영용 외	부키	일반	중앙 유승림
16		독서교육	하루 15분, 책 읽어 주기의 힘	짐 트렐리즈	북라인	학부모	김포 김지연
17	과학	뇌	행복한 두뇌	구로카와이호코	영림카디널	일반	중앙 김미숙
18		생태주의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리처드 루브	즐거운상상	일반	평택 조선경
19		뇌과학	뇌와 마음의 구조	일본 뉴턴프레스	뉴턴코리아	일반	김포 이승희
20		건강(건강)	걸음아 날 살려라 : 장생보법	이승헌	한문화	일반	광주 김미진
21	예술·취미	영화감독	거장의 노트를 훑치다	로랑 티라르	나비장	일반	평택 박은동
22		행복의 의미	행복을 주는 그림	크리스토프 앙드레	마로니에북스	일반	광주 최혜숙
23		문학기행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	김화영	마음산책	일반	김포 김성옥
24		문학기행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든다	임동헌	랜덤하우스코리아	일반	중앙 이은형
25		여행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	박혜영	넥서스BOOKS	일반	포천 채성희
26	어린이	우정	미안해, 친구야	우치다 린타로	주니어랜덤	유아6-7	중앙 강명희
27		성장소설	안녕히 계세요	남찬숙	우리교육	초5-6	평택 김석주
28		옛이야기	오늘이 -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	서정오	봄봄	유아4-7	중앙 강수연
29		예술	사라진 모나리자와 다 빈치의 비밀	정명숙	한솔수북	초4-6	김포 안선영
30		자신감	고양이 혼내 주기	김기정	시공주니어	초1-3	포천 김현주
31		지혜	우리 집은 시골시골해	앤 맥거번	보물창고	유아4-7	광주 이미경
32		친구	아기여우의 친구 만들기	애덤 램프	예림당	유아	평택 서부남
33		장애극복	나 때문이야	고정욱	아이앤북	초3-4	중앙 이정주
34		인생의지혜	천재를 뛰어넘은 77인의 연습벌레들	박성철	다산어린이	초등전학년	중앙 이목화
35		공감	벤은 나와 조금 달라요!	캐시 후프먼	스콜라	초5-6	김포 정은성
36		입양	안손 씨의 양복	원유순	한겨레아이들	초3-4	포천 노보형
37		왕따	작전 1호: 왕따와 학교폭력 이겨내기	캐서린 드피노	해솔	초3-4	여주 전미향

※ 위 도서들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ggilb.or.kr)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엘렌 싱어 / 한국경제신문사 / 2005 / 173 p.
이용대상: 일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기획정보부장 _ 강선주

이 책은 미국의 성공한 증권 회사의 사장 조나단과 그의 운전기사 찰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위한 변화와 자기혁신이 어떻게 성공에 이르게 하는지를 편안한 필치로 이끌어 독자에게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의욕과 감동을 준다.

어느 날 리무진에서 조나단 사장을 기다리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찰리를 보며 조나단 사장은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쫄쫄... 찰리, 자네 또 마시멜로를 먹고 있구먼!” 하며 핀잔을 주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마시멜로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일종의 부드러운 캔디라고 할 수 있다.

조나단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마시멜로에 관한 이야기를 찰리에게 들려주며 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자기 변화의 과정을 전개해 나간다. 조나단이 네 살 무렵의 일이다. 당시 조나단의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과정 중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만족유예’에 관한 실험이 있었고, 조나단은 아버지의 권유로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된다. 이 실험은 아이들의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것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독방에서 각각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씩을 받게 되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아내면 마시멜로 하나를 상으로 더 받게 되어 있었다. 어린 조나단은 욕망과 자제심을 동시에 시험 받게 된 것이다. 조나단은 먹고 싶은 욕망에 마시멜로를 만지작거리기도 하였고 혀로 핥아보기까지 하였는데 결국은 참아내고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게 된다. 그리고 십년 후 그 실험에 참가하였던 수백 명의 아이들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신만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쉽게 좁혀지지 않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만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실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쪽이 한결 손쉽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순간순간의 만족에 너무나 빠를 것 없이 열중한다.

찰리는 이야기의 전편에 걸쳐 조나단으로부터 성공에 이르는 변화된 생각과 실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성공을 향한 변신을 이루어내고 만다. 찰리는 조나단이 들려주는 교훈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변화된 생각을 정리해 나간다.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마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적당한 시기가 반드시 온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서 얻으려면 그 사람이 나를 돕고자하는 욕구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게 만들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감동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

이 책에서 마시멜로의 실험을 통해 얻고자했던 교훈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바로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각자의 인생에 있어 마시멜로를 위한 5단계 계획을 제시한다.

1.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3.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5.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임현우 지음 / 나남출판 / 2007 / 25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상상력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김정미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재기 넘치고 발랄한 상상력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시각디자인과 광고를 매개로 인생에 있어서의 꿈과 희망, 그리고 상상력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물 흐르듯 흐르는 편안한 문체와 거의 매 장 원편에 자리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각 주제에 맞게 선정한 광고사진들과 시각자료들은 책을 읽는 내내 편안함과 함께 시각적 재미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태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못 뜨겁한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물론 저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도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뜨끔해짐을 느꼈다. 그중 내 가슴을 제일 뜨겁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저자의 물음에서였다. 이 물음에 나는 할 말이 없어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무기가 나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라도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힘겹게 이 장을 넘길 수 있었다.

이 책은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편안해 보이지만 결코 편안하지 않은 읽기, 우리의 삶, 거기서 맛볼 수도 있는 좌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활력이 되는 유쾌한 상상력을 담아내고 있다.

주제관련도서 : 광고의 세계에 한번 빠져볼까요?

1. 라이프스타일을 바꾼 광고 그래픽 / 이화자 지음, 수류산방중심, 2006.
2. 사진 광고에서 아이디어를 훔치다 / 이화인 지음, 디지털북스, 2006.
3. 광고, 욕망의 연금술 /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07.



세계사,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크리스 브래지어 / 이후 / 2007 / 295 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세계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_ 김지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이야기,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전부일까?

유럽 중심의 역사 해석 및 담론으로 교묘하게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수천 년 이상을 이어 온 전쟁과 정치의 흐름 아래 잠겨 고작 몇 명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될 뿐인 여성의 역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계와 시간 전체를 경험하는 대신 유럽 한 쪽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과 남성 위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모든 열정을 소모해 버렸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온 이러한 불평등한 역사의식이 서양에 대한 문화적 사대주의와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기체의 기원이 되는 점액질부터 시작해 21세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한 권(4만 단어)의 책으로 엮어낸 이 책은 여성의 역사를 역사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하며,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문화에는 언제나 심한 불균등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꾸준히 상기시키고 있다. CNN, BBS 등 서양의 언론을 통해 바라본 지구촌 모습을 아무런 비판 없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수 있게끔 일깨워 주는 책이다. 한 시대와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책을 찾는 분들께 권하고 싶다.

〈아주 특별한 상식 NN〉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은 우리 시대의 핵심 주제들을 짧은 시간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문장을 통한 긴박하고 역동적인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1.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 이육순 저, 삼인, 2007.
2. 거꾸로 읽는 세계사 / 유시민 지음, 푸른나무, 2004.
3. 편지로 읽는 세계사 : 사사로운 기록이 뒤집은 인류의 역사 / 외타히키 히로시 지음, 디오네, 2007.



(사치의 나라) 렉서리 코리아

김난도 지음 / 미래의창 / 2007 / 264 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소비자학, 소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주분관 _ 김지은

명품! 名品! 명품?? '명품' 하면 외국의 고가브랜드 제품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체 언제부터 '명품 = 외국의 고가브랜드 제품'의 공식이 성립하게 된 것 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명품'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합니다. 시판되는 상품치고 명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명품, 화장품도 명품, 패션잡화도 명품, 심지어 먹는 물과 분유도 명품이 따로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명품에 대한 은근한 동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명품소비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소비의 이유와 방식을 설명하고 나아가 명품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요소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안내해 줍니다. 또한 각 유형별 소비패턴을 살펴 보면서 자신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 책은 딱딱할 수도 있는 주제를 유기적인 구조와 '명품소비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과의 공감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공감대는 명품소비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치품, 고가품이라는 단어 대신 거부감이 적은 단어 '명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를 조장한다는 저자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명품소비 자체보다는 도에 넘치는 소비와 그런 소비를 권하는 사회가 문제인 것이겠지요.

무슨 일이든 자신을 아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명품소비 성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주제관련도서 :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교양서

1. 쇼핑하기 위해 태어났다 / 줄리엣 B 쇼어 지음, 해냄출판사, 2005.
2. 즐거운 불편 / 후쿠오카 켄세이 지음, 달팽이, 2004.
3. 윤광준의 생활명품산책 / 윤광준 지음, 생각의 나무, 2002.



꽃아 꽃아 문 열어라

이윤기 / 열림원 / 2007 / 316 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우리 신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허춘자

작가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다. 번역가로, 그리스 로마신화로 여러 권의 책을 냈던 분이다. 이제 먼 길을 돌아 우리 신화이야기를 이 한 권의 책에 풀어놓는다.

제우스나 포세이돈 대신 단군과 웅녀, 주몽과 유리태자, 박혁거세와 알영,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등장한다.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정사를 기록한 책이고, 일연스님의 삼국유사는 야사를 기록한 책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거짓말이고 신화이고 설화이고 황당한 얘기를 기록한 책으로 기억한다.

작가는 말한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들의 근본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무관심은 중오보다도 유독(有毒)하다고... 그래서 그런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 신화가 극심한 애절결핍증을 앓아온 것이라고... "우리의 근본을 푸는 본(本)품이!!! 이것이 곧 우리 신화다"라고 말한다.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서 아는 것만큼 더 보이게 만들고, 본 만큼 더 알게 만든 장본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이는 우리의 신화가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기도 한다는 것일 것이다.

미국의 신화학자 캠벨에 따르면 "꿈은 개인의 신화요, 신화는 모듬살이의 꿈이다"라고 한다. 누군가가 자기를 "미국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다. 이 놀라운 기문둔갑(奇門遁甲)의 세계를 횡행하는 논리오류와 형용모순과 상투어구-신화는 그런 세계에 핀 꽃 일 것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

이 가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해 보면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가는 우리 신화의 세계로 한번 빠져봄이 어떠하실지...

주제관련도서 : 우리 신화 이야기

1.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 서정오 지음, 현암사, 2005.
2.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 조현설 지음, 한겨레출판사, 2006.
3. 되새겨 보는 우리 건국신화 / 김문태 지음, 보고사, 2006.



책력(冊力)

안상현 / 북포스 / 2007 / 312 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책읽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 _ 이마경

도서관에서 몸을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사람들은 사서를 보고 책을 많이 읽어서 좋겠다, 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유식할 거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사서들에게 미안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책 좀 읽어야지' 하는 반성의 마음을 갖게 해 준다.

『책력』은 책의 힘에 대한 32가지 이야기 속에서 네 가지 책의 힘을 담은 책이다.

1. 책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2. 지식사회에서 책은 무기다.
3. 책은 삶을 깨어 있게 한다.
4. 책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을 읽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책의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는 순수와 순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순수요, 비워져 있는 것은 순진이다. 순수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으니 깨끗함 그 자체이고, 순진은 비어 있으므로 그 안에 순수처럼 깨끗한 물이 담길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 세상의 많은 쓸모없는 주장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순수요,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진이라, 이 둘은 책을 통해 우리가 발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친구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책 앞에서 얼마나 진솔함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말은 아무 생각이나 각오 없이 책읽기를 하는 대부분의 독자를 위한 일침인 말이다. 수면 중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게 하는 자명종 역할을 한다.

누군가 “사서이니 책을 많이 읽으시겠네요?”라고 묻는다면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주제관련도서: 책읽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책

1. 책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 기획회의 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7.
2. 세상을 바꾼 12권의 책 / 멜빈 브래그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3. 오픈 북 / 마이클 더다 지음, 을유문화사, 2007.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조선영, 박현찬 / 위즈덤하우스 / 2007 / 245p.
이용대상: 일반
주제: 경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_ 박은동

요즘은 말 잘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가?! 다들 말을 참 많이 한다. 많이 하는 만큼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소통도 더 원활해져야 맞을 텐데 어째 더 삭막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이 책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책이다. 주인공 이청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청이 아니라 '이토벤' 이라고 불리는데, 귀머거리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언제나 듣는 척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한 대로 모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뇌종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간다.

사람들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대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진 것도 아마 그 탓이리라.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만 듣고 내뱉는 일방통행식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말하는 이의 마음까지 읽어내어 진정으로 말하기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아래의 메시지들을 읽어보자.

- 판단하려는 나를 비워내고 내면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 내 안의 너, 네 안의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진실의 목소리가 들린다.
-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창조적 공존의 길이다.
-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다.

주제관련도서: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1. 사람과 사람사이 / 고철중 지음, 다산북스, 2007.
2.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 이민규 지음, 더난출판사, 2005.
3. 소통(따뜻한 변화 에너지) / 박태현 지음, 웅진씽크, 2007.



무지개 원리

차동엽 / 위즈앤비즈 / 2007 / 36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긍정적 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김충희

누구나 마음속에는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 해매고 있거나 알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이 책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에너지가 여기저기 흘러 넘쳐 살 만한 곳이 많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유대인들이 매일 두 번씩 암송하는 '셰마 이스라엘'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임하는 자세, 저자는 이런 자세를 훈련시켜 세계적인 위인들을 많이 배출한 유대인의 교육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7가지 무지개원리를 완성, 설명하고 있다.

- 무지개원리 1 -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 무지개원리 2 -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 무지개원리 3 - 꿈을 품으라.
- 무지개원리 4 - 성취를 믿으라.
- 무지개원리 5 - 말을 다스리라.
- 무지개원리 6 - 습관을 길들여라.
- 무지개원리 7 -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원리마다 자세한 실천가이드가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고 무슨 거창한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쉬우면서도 간편한 방법, 단지 실천만 하면 지금의 삶보다는 보다 넉넉하고 윤택한 생활이 될 수 있을 방법들이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뱉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절제된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 매력의 말을 해야 한다.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희망의 말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하면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말을 먹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는 일 마다 잘 되게 하는 무지개 원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자. 눈앞에 무지개가 펼쳐지리라~.

주제관련도서 : 나의 무지개를 찾아서

1.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양문, 2002.
2. 평화로움 / 틱낫한 지음, 열림원, 2002.
3.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 / 사토 도미오 지음, 대교베텔스만, 2007.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다브 / 김영사 / 2007 / 364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인권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_ 박혜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논쟁거리도 되지 못하고 무시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아직도 통하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무려 3천 년 전에 탄생되었던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소리 없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인도헌법에서는 50여 년 전에 벌써 폐지되었지만 인도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습관처럼 이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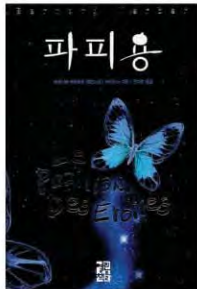
이 책은 카스트 제도의 4가지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 불가촉천민이란 접촉할 수 없는, 같이 숨 쉬는 것조차 금지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생에 진 죄 때문에 천하게 태어나 그와 같은 업보를 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고뇌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원에서조차 기도 드릴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달리트'이다.

달리트 출신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이름을 알린 나렌드라 자다브가 들려주는 그의 부모님의 삶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도 현대사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준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남다른 믿음을 지녔던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가끔 '어디어디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출신을 따지고, 때문에 학력을 위조하고... 우리사회에서도 깊숙하게 숨어있는 불순한 습성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용기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더욱 아름답해질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품어본다.

주제관련도서 : 인권 이야기

1. 집으로 가는 길 / 이스마엘 베아 지음, 북스코프, 2007.
2. 그래도 내 마음은 티베트에 사네 / 아파 아데, 조이 블레이크슬리, 궁리, 2007.
3. 주기율표 / 프리모레비 지음, 돌베개, 2007.



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07 / 39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희망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함은경

파피용(papillon)은 나비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작품 안에서는 우주 범선의 이름이자 새로운 희망을 의미한다. 이 소설은 단순한 오락성 판타지가 아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과 인간사회의 반복적인 문제점들, 그 가운데 보이는 용기, 희망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실 이런 주제가 문학에서는 이미 식상해진지 오래이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골고루 잘 섞어 참신한 소재로 풀어낼지는 작가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임을 「파피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뻔한 주제이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볼 수 있게 만드는, 한마디로 공감하게 만드는 재주랄까...

인류는 자기파괴와 모순의 정점에 다다라 지구를 점점 황폐하게 만든다. 이에 지구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과학자 이브는 태양계 밖 새로운 지구를 찾아 떠나려는 계획을 세운다. 문제는 새로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천 년 뒤 새로운 지구에 인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를 지나도 생존해 있을 지구 생명체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우주 범선과 여행의 규모는 커져간다. 설상가상으로 지구를 탈출하려는 이 계획은 이기적이고 반체제적인 사상으로 규정되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탄압에 부딪친다.

우여곡절 끝에 14만 4천명의 인류를 싣고 출발한 우주 범선은 권력이나 종교, 폭력 등이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천 년의 시간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여행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탈출해 온 지구사회와 비슷해져만 간다. 마침내 새로운 지구를 발견했을 때에는 반복된 전쟁으로 인해 단 6명만이 생존하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지구에서 정말 그들이 바라던 사회를 건설했을까? 새로운 지구에서 인류의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

결말은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다시 한 번 작가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다른 소설 읽어보기!

1. 개미 /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열린책들, 2001.
2. 나무 /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열린책들, 2003.
3. 타나토노트 /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열린책들, 2000.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 마음산책 / 2007 / 230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에세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여주분관 _ 김상미

변덕스럽던 여름 날씨가 어느덧 쌀쌀한 가을로 접어들었다. 가을 분위기에 맞는 시집을 한권 고르다가 내 눈에 띄는 책은 김승희 시인의 시와 산문에 김점선 화가의 그림이 어우러진 책이다.

지은이는 그동안 엄마, 아내, 며느리, 딸로써 다양한 역할을 가진 우리나라의 한 여성으로, 살면서 느껴온 비뚤 여성의 애환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우리 주위에 흔히 살고 있는 여자들이다. 사내 성희롱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다 미움을 사는 여자, 신랑의 만세 삼창에 이어 ‘땡 잡았다!’를 외치며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 아들의 가정에 ‘배후의 여자’로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들, 자기 지식 밖에 모르는 슈퍼에고적 엄마들까지...

‘여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직장으로 차를 몰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나온 것 같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은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여자들을 여러 역할 속에 힘겹게 살아가게 만들고, ‘늘 무언가를 껌박 빠뜨린 것만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현실적 문제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라는 답을 찾아간다.

김장이다 월동준비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느라 더 바빠지지만 잠시 낙엽을 쳐다보며 나를 되돌아보고, 내 문제 안에서도 “그래도”라는 답을 찾아보며 이 책을 덮는다.

주제관련도서 : 일하는 여자의 행복을 찾아서

1.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 김미경 지음, 명진출판사, 2007.
2.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자로 산다는 것 / 임경선 지음, 랜덤하우스, 2007.



오하느님

조정래 / 문학동네 / 2007 / 241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역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 _ 윤정화

조정래의 소설 「오하느님」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다. 사진속의 독일군복을 입은 앓은 얼굴의 아시아인이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 조사를 받는 듯한 모습이다.

사진에 딸린 영문 설명은 이러하다.

“이 사람은 일본군으로 징집됐다. 1939년 만주 국경 분쟁 시 소련 군에 붙잡혀 적군에 편입됐다. 그는 다시 독일군 포로가 되어 대서양 방어선을 건설하는 데 강제 투입되었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다시 미군의 포로가 됐다. 붙잡혔을 당시 아무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미 정보부대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사진 속 청년을 모델로 한 주인공 신길만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된다. 만주벌판에서 북풍한설을 몸으로 받으며 일진일퇴 하는 동안 전세는 점점 악화되어 마침내 소련군의 포로가 된다.

신길만은 단지 ‘살아 고향으로 가기 위해’ 그들의 약속을 믿고 소련군이 되고 소련식 이름도 갖게 된다. 그러나 곧 소련도 독일에 밀리고 그는 다시 독일군의 포로가 된다.

점점 더 고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살아만 있다면 언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는다. 또 다시 미군의 포로가 된 그는 자신이 결코 소련인이 아니며 무고한 조선인이라 주장하지만 그건 단지 허공을 가르는 무의미한 외침이 되고 만다.

주제관련도서 : 소설로 읽는 우리역사

1. 토지 / 박경리 지음, 나남출판, 2002.
2. 아리랑 / 조정래 지음, 해냄, 2002.
3. 태백산맥 / 조정래 지음, 해냄, 2001.



세계 명문 직업 학교

동아일보 국제부 / 동아일보사 / 2006 / 375p.
이용대상 : 청소년, 일반
주제 : 직업학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함은경

「냉정과 열정사이」를 보면 남자주인공 준세이의 직업이 미술품 복원사로 나온다. 참으로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미술품이라니. 그렇다면 미술품 복원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책은 동아일보가 연재한 “세계의 명문 직업학교를 가다” 시리즈를 모아 펴낸 것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은 크게 요리, 예술, 기술, 서비스&레저 네 분야의 명문 직업학교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교의 커리큘럼, 입학조건, 학비, 졸업 후 취업 등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등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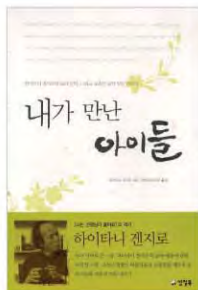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복원한 이탈리아 국립미술품복원학교,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학교, 연예인 박경림도 다녀갔다는 뉴욕 필름 아카데미, 세계 유일의 항공국제고등학교, 카지노 매니저를 양성하는 카지노 경영학과 등 다른 직업학교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소개되어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무원이 희망직업 1순위라는 뉴스나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비단 나뿐인가.

이 책에 실린 명문 직업학교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다. “열정 하나면 못할 게 없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따라 자신의 꿈을 맞추는 삶이 아닌, 꿈을 갖고 그것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해 본다.

주제관련도서 : 청소년의 직업/진로 선택을 도와줄!

1. 공상이상 직업의 세계 / 김봉석 지음, 한겨레출판사, 2006.
2. 스무살 이제 직업을 생각할 나이 / 이기대 지음, 미래의창, 2004.
3.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 / 와이즈멘토 지음, 동아일보사, 2006.



내가 만난 아이들

하이타니 겐지로 / 양철북 / 2007 / 230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자녀교육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 _ 권효진

“참된 상냥함은 절망을 헤치고 나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로 시작되는 이 책에는 하이타니 겐지로씨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진잔히 펼쳐진다. 책 속에서 작가가 그토록 아이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인의 소중한 다양한 한 경험이 녹아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암울했던 소년기, 공장을 전전하면서 만났던 노동자와 하층계급의 사람들, 그 시절 속 주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암울하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밝고 낙천적이었다. 그들은 작가가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 이후 교사생활을 하면서도 흔히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단순히 다른 선생님들처럼 ‘무시하고 버려두어야 하는 아이들’로 치부해 버리지 않고 보다 넓은 눈으로 포용하고 감싸 안는다.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오늘의 현실경제법칙 앞에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냥할 수 있음을 실천하는 것은 본인의 어두운 과거를 현실의 밝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작가의 뛰어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서문은 이런 또다른 구절을 가지고 있다.

“이 기록은 내가 아이들을 살게 한 기록이 아니다. 아이들로부터 내가 살게 된 기록이다.”

하이타니 겐지로씨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의 표현이 아닐런지. 아이들은 이런 상냥한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싶다. 이 땅의 선생님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은 만나보길 권하고 싶은 책이다.

주제관련도서: 살아있는 교육이야기에 대해 더 만나보고 싶다면,

1. 교사와 학생 사이 / 하임G.기너트 지음, 양철북, 2003.
2. 계획 / 고봉익 지음, 북성, 2006.
3. 애들아너희가 나쁘게 아니야 / 미즈타니 오사무 지음, 에이지21, 2005.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한영웅 외 14인 / 부키 / 2006 / 224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요리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유승림

추석 연휴에 한 TV프로그램에서 요리경연대회를 방영하였다. 각 분야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나와 자신의 대표적인 요리를 만들어 서로 실력을 겨루었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저 저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냅을 잃고 보다가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과정에 있어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이마에 땀방울 맺히기면서 요리하는 모습에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책은 그런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식, 중식, 일식,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등 각 분야의 요리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방송 푸드코디네이터, 식공간 연출가, 소믈리에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14명의 요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요리사로 입문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초보시절의 힘들었던 이야기, 현재 최고가 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육체노동에 버금가는 힘든 작업이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점차 자신을 만들어 나아간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요리사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환상적인 일상을 꿈꾼다면 NO~!!!, 비록 힘들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있기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직종에 관련된 자격증 정보와 취업정보에 대해서도 알려주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여유로워진 생활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은 맛을 찾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미(味)를 책임지는 “요리사”에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자.

주제관련도서: 클릭! 취업·진로-내가 선택할 길

1. 바리스타의 길 / 권장하 지음, 미스터커피SIC출판부, 2005.
2. 파티&파티플래너 / 이우용 지음, 눈과마음, 2007.
3. 매직잡 / 김세준 지음, 천케이, 2007.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하루 15분, 책 읽어 주기의 힘

짐 트렐리즈 / 북라인 / 2007 / 271p.

이용대상 : 학부모

주제 : 독서교육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_ 김지연

아이를 과외 한번 없이 외국의 명문대에 입학시킨 부모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책을 함께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게 했다는 것이다.

모 일간지에서도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를 아아가는 TV와 컴퓨터를 안방으로 물리고, 거실에 서가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책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거실문화를 만들자는 독서운동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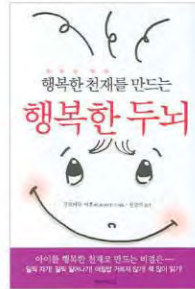
하지만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다. 무조건 많이 읽히기만 하면 좋은 건지 독서 편식을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매일같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도 않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 내 자신이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 얼마만큼의 책을 읽어주었나 생각해 보니 절로 부끄러워진다. 아이의 독서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

이 책은 아이에게 왜 책을 꾸준히 읽어주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주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읽어주어야 하는지, 혼자 읽기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TV와 인터넷은 독인지 약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부모의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찬찬히 설명함으로써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을 전한다.

책 뒤에는 읽어 주기에 좋은 길잡이용 도서 목록이 실려 있어 부모가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제관련도서 : 독서교육 너무 어려워 하지 마세요

1. 삼남매 독서영재 육아법 / 유은정 지음, 푸른육아, 2007.
2.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 박영숙 지음, 알마, 2006.
3.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 이현 지음, 화너북스, 2005.



행복한 두뇌

구로키와이호코 지음 / 영림카디널 / 2007 / 223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김미숙

부모들에게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질까' 하는 것은 중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서관과 서점에 아이의 교육에 관한 책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뇌 과학 전문가인 저자는 자신의 아이를 좋은 뇌를 가진 행복한 천재로 키우고자 마음먹는다. 저자는 '성격 좋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두뇌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행복한 두뇌로 키우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일찍 자기 -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만들어 진다
2. 일찍 일어나기 - 아침 5시대에 일어나는.
3. 아침밥 거르지 않기 - 뇌에 연료를 보급하는 것과 같다.
4. 책 많이 읽기 - 책은 독창적인 발상의 원천이다.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때론 가장 기본적인 쉬운 것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시금 생각하게끔 해주고 자극시켜 준다. 즉 순리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게 한다. 간혹 부모의 욕심이 지나쳐 오로지 관심이 입시문제, 사회적 인정 등에만 치중하다보니 정작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아이의 커가는 과정을 봐주고 그 가능성을 죽이지만 않으면 될 텐데... 지금의 교육 현실 속에서 힘겨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가능성에 민감해지고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한 천재'가 되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지나온 나를 되돌아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두뇌발달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에게 행복한 두뇌를 위해 좀 더 발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자기를 풍요롭게 가꾸는 도서

1.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 앤디 앤드루스 지음, 세종서적, 2003.
2. 비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 팍 맥리건 지음, 예문, 2002.
3.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스티븐코비 지, 김영사, 1994.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리처드 루브 저 / 즐거운상상 / 2007 / 344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생태주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_ 조선경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 자연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뛰어놀 만한 자연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결핍장애'를 겪게 된다.

이 책은 아이들이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그런 변화가 환경과 사회, 심리, 영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발달과 성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한군데 모았다.

자연은 널리 알려진 대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효과가 있다. 책 속에는 주의력결핍장애나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은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치료효과를 거둔 임상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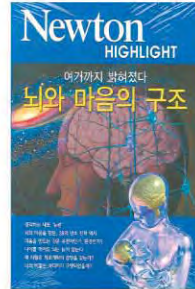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아이들에게 자연이 필요한 이유로 뇌기능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자연은 값비싼 레고블록이나 퍼즐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구가 된다. 숲이나 강, 바다 등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놀 장소와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탐구능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창조적 활동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업적은 어린시절 자연 속에서 얻은 영감과 감동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음이 사례를 통해 설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호만을 위한 환경보호는 지양한다. 법조항과 규칙만으로는 자연을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아이들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피상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대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안으로 혁신적인 환경중심 교육프로그램과 생태도시이론, 환경단체를 둘러싼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도시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잃어가고 각박한 인성만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해본 적 있는 부모라면 이 책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야만 인간도, 자연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자연에서의 평화로운 삶

1. 21세기 생태평화를 위한 환경교과서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지음, 알마, 2007.
2. 사람은 언제쯤 다시 숲으로 돌아갈까 / 토마스 R. 크로우 저, 마음의숲, 2007.
3.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 안순혜 글, 박혜선 그림, 파란자전거, 2004.



뇌와 마음의 구조

일본 뉴턴프레스 / 뉴턴코리아 / 2007 / 157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뇌과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_ 이승희

영화나 책을 보면서 웃었던, 울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일까? 우울증도 마음의 문제일까?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일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마음이 슬프거나, 괴롭다고 해서 '뇌'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희로애락의 감정, 울다가 웃다가, 화를 냈다가, 슬퍼하다가... 이러한 감정의 움직임은 뇌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책은 이러한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 - 기초적인 뇌의 구조에서부터, 뇌의 발달과정, 감정의 형성 과정, 그리고 뇌과학의 현황과 향후 미래 과제에 이르기까지 - 240여 컷의 초정밀 인체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끊임없이 뇌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지만, 뇌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한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지만, 이 책은 많은 시각자료와 함께 전문가의 명쾌한 해설을 덧붙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의 뇌질환 치료를 위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근황과 앞으로 뇌과학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뇌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자 하는, 혹은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감정발생의 원인인 뇌와 마음의 구조에 대해 깊이있게 다룬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주제관련도서 : 뇌과학의 미래

1. 뇌 맵핑마인드 / 리타 카터 지음, 말글빛남, 2007.
2. 뇌의 기막힌 발견 / 스티브 후안 지음, 네모박스, 2006.
3. 새로운 뇌 / 리처드 레스탁 지음, 휘슬러, 2004.



걸음아 날 살려라 장생보법

이승헌 / 한문화 / 2007 / 241 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건강(걷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_ 김미전

바야흐로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78세를 기록했다. 평균수명이란 인간이 태어나 사망할 때까지의 물리적인 생존기간을 뜻한다. 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인 생활을 한 기간을 가리켜 건강수명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수명은 65세로 평균수명과 무려 13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진정한 장수는 당연히 평균수명이 아니라 건강수명을 의미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현대단학과 뇌 호흡의 선두주자인 저자 이승헌은 해학적으로 느껴지는 책 제목에서처럼 걷기만 열심히 해도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장생보법이라는 걸음걸이로 용천과 뇌를 자극하여 뒤틀어진 몸과 마음을 바르게 잡아줘서 몸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원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꿈을 향해 가는 걸음걸이에 기운을 실어주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장생보법은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11자로 걸어라.
둘째, 용천을 지압하듯 걸어라.
셋째, 꼬리뼈를 말고 걸어라.
넷째, 정면을 바라보고 신나게 걸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 걸어라.

모든 사람들이 장생보법을 통해 건강(Health), 행복(Smile), 평화(Peace)를 찾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소망해 본다.

주제관련도서 : 신나고 즐겁게 걸어보아요!

1. 걷기혁명 530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 성기홍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04.
2. 걷기운동 30분 / 남상남 지음, 넥서스북스, 2005.
3. 건강을 위한 웰빙걷기 / 이강욱 지음, 가림출판사, 2004.



거장의 노트를 훑치다

로랑 티라르 / 나비장 / 2007 / 277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영화, 영화감독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_ 박은동

우리가 영화를 선택할 때 스토리나 주연배우를 보고 고르기도 하지만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인가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대작을 만들어 낸 감독의 작품이라면 감독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책은 [거장의 노트를 훑치다]라는 제목처럼 거장이라고 불리는 21인의 영화감독과 이 책을 집필한 로랑 티라르의 짧지만 심오한 인터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각각의 감독들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나?' '감독은 시나리오를 직접 써야 하나?' '영화를 찍는데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카메라나 렌즈는?' '배우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만의 영화에 대한 철학, 연출관 등을 드러내 보여준다.

영화를 잘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대답들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내 삶으로 영화에 연료를 채워야 가장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올리버 스톤의 말처럼 감독의 인생, 삶 등이 다 녹아있다.

영화감독이나 영화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깊이 있게 영화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 삶이나 인생철학에 대해 가볍게 읽을 거리를 원하는 사람 등에게 이 책을 권한다.

주제관련도서 : 깊이있는 영화보기

1.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 이왕주 지음, 효형출판, 2005.
2. 영화만들기 / 시드니 루멧 지음, 이론과실천, 1998.
3. 영화의 이해 / 루이스 자네티 지음, 현암사, 1997.



행복을 주는 그림

크리스토프 앙드레 / 마로니에북스 / 2007 / 238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행복의 의미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_ 최혜숙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릿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고 기다리지만 행복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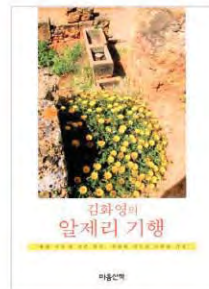
여기 스물다섯편의 걸작그림이 있다. 어떤 그림은 행복한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몇몇 그림은 불행한 삶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책의 작가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태어나고 성장하며 피어나고 사라지는 살아있는 감정이라 낮과 밤처럼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감정을 겪게 되고 감정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걸작 그림에 대한 일화나 화가에 대한 설명에 이 작품이 어떠한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작가의 생각이 더해져 다소 철학적 색채를 띠고 있다.

책에 나온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자의 세 시기』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클림트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았지만 아이를 낳고 그림을 보니 느낌이 전혀 달랐다. 엄마 품에 편하게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에 자꾸 내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나도 같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 행복을 찾는 것은 본능이라는 작가의 말이 잘 표현된 그림이었다.

역자 함정임씨의 말대로 이 책은 단숨에 읽어 버리기보다는 행복의 인식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꺼내어 보면 좋을 듯하다. 한편의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 내 집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살면서 짓는 미소,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이며 행복이 아닐까 싶다.

주제관련도서 :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림 읽기

1. 그림 같은 세상 / 황경신 지음, 아트북스, 2002.
2. 아이와 함께한 그림 / 공주형 지음, 아트북스, 2007.
3. 인생이 그림 같다 / 손철주 지음, 생각의나무, 2005.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

김화영 / 마음산책 / 2006 / 28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문학기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_ 김성욱

이 책의 저자 김화영은 일명 '카뮈 박사, 카뮈 전문가'라고 불리는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교수이다. 위대한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알베르트 카뮈'는 청년시절부터 그의 삶을 관통하는 사유의 대상이었으며, 그러한 카뮈의 고국 알제리는 그에게 카뮈문학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숙명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순례지이기도 같은 곳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소원해왔지만 쉽게 갈 수 없었던 알제리로의 기행을 마침내 감행한다.

이 책을 엄격하게 분류하자면 기행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알제리 관련 여행서라는 단서가 붙은 이 책은 알제리 여행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카뮈의 문학과 알제리의 기행을 결합시켜 저자와 함께 마치 사유하듯 떠나는 여행을 떠올려 보게 만든다. "바람 구두를 신은 당신, 카뮈와 지드의 나라로 가자!"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권유한다.

이 책이 다른 기행서와 차별화 되는 점은 저자가 방문한 알제리 여러 지방의 풍경 - 주로 카뮈 문학속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 - 과 그곳에 당도해서 저자가 느끼는 감회와 사유, 또한 알베르트 카뮈와 앙드레 지드의 문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장의 인용을 섞어가며 서술하여 문학적인 기행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카뮈의 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이 책은, 그의 문학 속에서 상상으로만 그려볼 수 있었던 소설 속 풍경의 실체를 감상해보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테마가 있는 색다른 세계여행을 떠나보자!

1. 김지하의 예감-새로운 문명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기행 / 김지하 지음, 이룸, 2007.
2. 80일간의 세계문화기행 - 아빠와 딸 세계로 가다 / 이희수 · 이강은 공저, 청아, 2007.
3. 앙드레 지드의 콩고여행 / 앙드레 지드 지음, 한길사, 2006.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든다

임동현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7 / 256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문학기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_이은형

고속도로 따라 산이나 바다를 향해 신나게 질주하여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기분을 업시켜 주는 여행! 게다가 여행지에서 구석구석 맛집 찾는 즐거움까지...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여행 패턴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가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서 여행 관련 서적을 뒤적거리다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은 스트레스를 확 날릴 만큼 신나게 달리지도 않고, 구석구석 찾아가 먹는 즐거움도 없다. 거기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봄직한 낯익은 명소도 별로 없다.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든다』는 질박한 삶이 묻어나는 시골장터길과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자연의 길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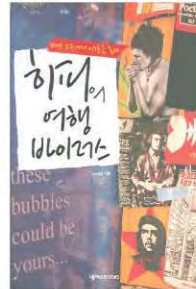
자연의 길, 사랑의 길, 동행의 길, 추억의 길의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나라 현대문학 작품 속에 등장한 17개의 길을 찾아가 작품 속 주인공의 온기를 느끼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치로 길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글마다 '길 밖으로 나온 문학' 코너를 마련하여 해당 작품의 작가로부터 길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작품과 길에 어울리는 계절, 추천코스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여행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여행의 참 의미란 흥청거리는 데 있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으로 유영하는 데 있으며, 길의 매끄러움보다 길을 오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면서, 사람향기 가득한 가슴 따뜻한 여행지를 찾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아울러 길속의 문학책 한권 품고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값진 여행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길 밖으로 나온 문학

1. (2006)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제6회 / 구효서 외 지음,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7.
2. 은비령 / 이순원 저, 생각의나무, 2006.
3. 눈길 / 이청준 저, 문학과지성사, 1997.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

박혜연 / 넥서스BOOKS / 2007 / 295 p.
이용대상 : 일반
주제 : 여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_채성희

최근 우리나라의 출판계는 유행처럼 두가지 분야의 서적에 집착하는 것 같다. 바로 자기계발과 여행관련 서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여행서적들 가운데 소소한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있다.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는 관광지나 여행에 대한 정보를 과시하듯 무지막지하게 털어놓거나 화려한 문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기교는 쓰지 않는다. 저자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늘어진 일상들을 여유로운 눈으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순서 없이 히피다운 자유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답답한 일상에 지친 우리는 한 번씩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그곳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저자의 여행도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30여 나라를 돌아보며 저자가 발견한 여행의 의미는 낯선 일상으로의 초대였다. 저자는 여행에서 어떤 것을 보았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에 대한 기록의 나열보다는 여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서부터 두려움을 벗어던지는 과정, 여행을 하며 어떤 것을 얻게 되었으며, 어떤 것이 좋았는지 등에 대해 감정적 흐름으로 엮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아 더 정겹고, 요란하지 않아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한비야가 오지 예찬론자라면, 이 책을 쓴 박혜연은 골목길 예찬론자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화려한 도시를 가도 그곳의 진면목은 그곳을 연결해 주는 골목길에 있다. 그녀는 골목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질편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한 끈끈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모두가 여행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다. 다행히 보균자에 그치는 이들은 무사히 다시 일상 속에 묻혀 살아갈 것이고, 발병한 사람들은 그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낯선 세상 속으로 뒤흔쳐나가게 될지도 모른다. 보균자가 되느냐 발병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각자의 자유이다.

주제관련도서 : 여행, 길 위에서 자신을 발견하다

1. (김지하의) 예감 / 김지하, 이룸, 2007.
2.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자들 / 패트릭 피츠후프, 금토, 2007.
3. Travel to Heaven / 편집부, ALLURE, 2007.



미안해, 친구야

우치다 린타로 글 / 주니어랜덤 / 2007 / 32p.

이용대상 : 유아 6-7세

주제 : 우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강명희

표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친구관계인 늑대와 여우가 화가 나서 내면의 화가 마치 붉은 피처럼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오는 붉은 피만 봐도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비 옴. 늑대와 여우는 둘도 없는 사이좋은 친구다. 여우가 늑대 집에서 놀이를 하는데 늑대가 공놀이에서 다섯 번씩이나 지고 말았다. 더욱이 자신만만했던 카드놀이에서도 지자 더욱 화가 난 늑대는 돌맹이가 떠내려갈 만큼 세차게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주지 않고 여우를 집에서 쫓아낸다. 마음씨 고운 여우도 화가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곧 둘은 후회를 한다. '미안해'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사과를 못하고 마음만 답답하고 무겁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서로 주위만 맴돈다. 괴로워하던 여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뚝 개미 위에 떨어져 다급히 개미에게 '미안해' 라고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늑대가 쉿 달려와 여우를 껴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뉘우친다.

비 온 뒤 맑음. 늑대와 여우는 화해하게 되어 너무 기뻐한다. 기분 이 좋아 그녀가 하늘까지 달을 듯하다.

또래 관계가 형성되는 유아 6-7세의 사회성 형성에 도움이 될 그림책이다. 『거꾸로 사자』로 일본그림 동화상을 받은 우치다 린타로의 작품으로 친구시리즈 '친구가 되어줄게', '너도 내 친구야', '친구가 올까' 와 함께 읽으면 좋겠다.

주제관련도서 :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1. 미안해, 친구야 / 버나드 와버 글, 아이세움, 2006.
2. 미안해, 친구야 / 셀리그린들리 글, 영교, 2001.
3. 친구가 되어줄게 / 우치다 린타로 글, 주니어랜덤, 2007.



안녕히 계세요

남찬숙 / 우리교육 / 2007 / 187p.

이용대상 : 초등 5-6

주제 : 성장소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_ 김석주

이 책은 30살의 미혼모 밑에서 자라는 진영이라는 아이가 겪는 성장통을 그린 동화이다. 주인공 진영이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진영이의 엄마는 어린시절 가출하여 거리에서 생활하다 열여덟 살에 진영이를 낳게 된다. 진영이의 아빠 역시 가출한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이 사실을 들은 진영이는 처음에는 괴로워하고, 엄마를 원망하지만 옥탑방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엄마가 자신을 키운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재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던 진영이는 그 상대가 휠체어를 타는 아저씨라는 걸 알고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아저씨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인다. 아저씨네 동네로 이사를 하면서 진영이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한다.

『그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나는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쳤다.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을 그 사람을 향해 아주 큰 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모든 작별이 다 끝났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며 왜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인가 궁금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원망하였지만 용서하며...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옥탑방 아저씨에게 이별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진영이는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를 한다.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며,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며 진영이는 한층 더 자라게 된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진영이처럼 한층 더 자라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관련도서 : 남찬숙 선생님의 다른 동화

1. 가족사진 / 남찬숙 지음, 금성출판사, 2004.
2. 받은 편지함 / 남찬숙 지음, 우리교육, 2005.
3. 니가 어때서 그까노 / 남찬숙 지음, 사계절, 2006.



오늘이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

서정오 / 봄봄 / 2007 / 30p.
이용대상 : 유아 4-7세
주제 : 옛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강수연

요즘 어린이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유명한 외국작가의 동화책이나 그림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판타지에 이르는 소재들을 세련된 그림으로 구성되어 읽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하지요.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화려하고도 섬세한 색채감과 모험 이야기를 한국적인 신화 형식으로 풀어낸 서정오 선생님의 「오늘이」는 짧은 이야기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면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감상의 여백까지 더해주는 책읽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모험 여정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마치 「오즈의 마법사」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특한 한국적인 미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이, 장상도령, 내일이야씨, 백주할머니 등 등장인물을 불러보는 독특한 재미는 물론, 넓디넓은, 높디높은, 깊디깊은 등 어미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및 문단의 반복은 마치 시조 운율을 읊조리는 것 같은 색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두루미와 피꼬리, 소나무 언덕, 맑은 연못, 이무기, 복숭아나무, 보물구슬, 단물 솟는 우물, 세이레 스무하루 등 토속적인 소재와 아름다운 한글의 조합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우리들의 마음까지 순화시켜주는 듯 따스함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고아로서의 좌절감과 불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아인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통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희로애락과 인간의 도덕성을 발견하게끔 하는 설정은 이야기 구성의 신선함까지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그림책의 결말은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과 해후로 오늘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피엔딩의 결말 보다는 한 페이지씩 감상해 보는 차원의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그림책이라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읽어도 좋을 듯한 「오늘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오늘이와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제관련도서 : 온 겨레 어린이들이 함께 읽을 옛 이야기

1. 종이에 쓴 당나귀 / 서정오 지음, 한림, 2007.
2. 정신없는 도깨비 / 서정오 지음, 보리, 2007.
3. 저승에 있는 곳간 / 서정오 지음, 한림, 2007.



사라진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비밀

정명숙 / 한솔수북 / 2007 / 112p.
이용대상 : 초등 4-6
주제 : 예술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_ 안선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루브르 박물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일 것입니다.

매년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고, 손수건이나 달력, 심지어는 손톱깎이나 다리미판 등에 쓰여진 정도로 모나리자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 모나리자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액자도, 방탄유리도, 배경도 모두 그대로인데 오직 모나리자만이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천재소녀 잔느와 모나리자의 실종을 처음으로 발견한 박물관 경비원 보트랑씨는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해요. 두 사람은 사라진 모나리자를 찾기 위해 박물관 지하 깊숙이에 사치원으로 만들어진 다 빈치의 공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발명가, 무기제조가, 무대연출가, 철학자였던 다재다능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숨겨진 비밀노트를 통해 모나리자를 찾을 단서를 추적해 갑니다.

이 책 「사라진 모나리자와 다 빈치의 비밀」은 전대미문의 모나리자 실종사건을 해결해 가는 추리형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사라진 모나리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사실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답니다.

주제관련도서 : 위대한 예술가의 인생

1. 태양을 훔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 염명순 지음, 아이세움, 2001.
2.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 / 최석태 지음, 아이세움, 2002.
3. 빛을 그리는 모네 / 강시정 지음, 봄날, 2007.



고양이 농 혼내 주기

김기정 / 시공주니어 / 2006 / 85 p.
이용대상 : 초등 1-3
주제 : 자신감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 _ 김현주

창고 앞 계단위의 푸짐한 똥! 누가 싸놓은 걸까?

사실 이 똥은 말쑥꾸러기 주먹똥(실제 이름은 '김주먹')이 싸놓은 똥이다. 항상 말쑥만 피우고 돌아다니는 주먹똥! 괴롭힘을 당하던 장미, 도둑고양이, 까치, 참새, 매미.... 들은 합심하여 주먹똥 혼내주기 대작전을 펼친다. 고응! 뿌지직! 결국 주먹똥은 아픈 배를 움켜쥐며 계단위에 똥을 싸고 만 것이다.

이 책은 삼양초등학교 2학년 7반 아이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김기정 작가가 살을 덧붙여 꾸며낸 것으로, 아이들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똥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소재로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처음엔 똥을 보고 더럽고 냄새가 난다며 모두들 코를 막고 선생님에게 기대어 어찌할 줄을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단결하여 깨끗하게 똥을 치우게 된다. 어찌 보면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일을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을 짜고 똥 치우기 선수를 정하며 재미나게 그려내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과잉보호 아래 똑똑하지만 나약한 아이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보는 건 어떨까?.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나게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본다.

주제관련도서 : 아이들 스스로 해답찾기!

1. 놀이터의 왕 / 필리스 레이놀즈 레이러 저, 보물창고, 2007.
2. 10살에 떠나는 미래직업 대탐험 / 한상근 저, 중앙북스, 2007.
3. 어린이를 위한 인생수업 / 김현태 저, 청림아이, 2007.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

안 맥거번 글 / 보물창고 / 2007 / 42p.
이용대상 : 유아 4-7세
주제 : 지혜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_ 이미경

할아버지의 집은 무엇이 그렇게 시끄러운 걸까? 책표지에 있는 할아버지는 집밖으로 몸을 내밀고 두 귀를 막고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그림만 봐서는 무엇이 시끄러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고요해 보이기까지 한 할아버지의 집에는 침대와 주전자 그리고 창문과 의자가 놓여 있을 뿐이다.

삐걱거리는 침대, 삐그덕거리는 마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지붕에서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피식피식 콧김을 내뿜어대는 찻주전자 소리 등 할아버지는 집의 거의 모든 것들이 시끄럽다고 느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간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집안에 소를 들여놓으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소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는 음매 음매 울어대는 소를 들여놓고, 히잉 히잉 울어대는 당나귀를 들여놓고, 매애 매애 울어대는 양, 꼬꼬 꼬꼬 울어대는 암탉, 아웅아웅 울어대는 고양이, 멍멍 멍멍 짖는 개를 들여놓는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할아버지는 다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간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과연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이 책 전반에는 같은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의성어의 계속되는 반복으로 인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멋진 그림까지 감상하는 것도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는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황이라는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책의 끝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주제관련도서 : 반짝반짝 지혜가 빛나요

1. 우리 집은 너무좁아 / 마고 제마크 지음, 비룡소, 2006.
2. 꼬마돼지 도라는 발을 동동 / 프란체스카 비어만 지음, 주니어김영사, 2007.
3.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 엘리자베드 슈티메르트 지음, 비룡소, 1999.

아기여우의 친구 만들기



애덤 램프 / 예림당 / 2006 / 24p.

이용대상 : 유아

주제 : 친구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_ 서부남

“하하하! 토끼랑 다람쥐가 친구인데...”

혼자 놀던 아기여우는 채집망을 들고 엄마한테 달려가서는 친구를 잡아 오겠다고 한다. 엄마는 웃으며 친구는 잡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아기여우에게 알려주고 아기여우는 친구를 만들러 밖으로 나간다. 아기여우는 ‘만들다’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나뭇가지와 사과로 열심히 친구를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만들어진 나뭇가지와 사과가 아기여우와 함께 놀아줄 리 없다.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가는 동안 아기여우는 토끼와 다람쥐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그리고 제 옆에 소중한 친구가 생겼음을 느끼게 된다.

친구를 나뭇가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자체가 엉뚱하고 우습지만, 순수한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에게 친구란 가족이라는 관계를 벗어나 세상을 향한 첫발을 뗀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엄마에게는,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 보다 스스로 친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에게는 친구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심어준다.

오늘 밤, 친구 만들기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주제관련도서 : 우리아이 친구사귀기

1. 친구가 되어 줄게 / 우치다 린타로 지음, 주니어랜덤, 2007.
2. 너도 내 친구야 / 우치다 린타로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3. 나랑 친구 할래 / 크리스틴 A. 애덤스 지음, 비룡소, 2006.

나 때문이야



고정욱 / 아이앤북 / 2007 / 109p.

이용대상 : 초등 3-4

주제 : 장애극복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이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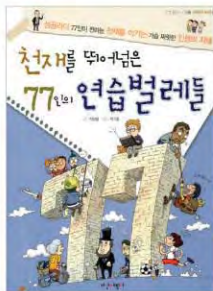
이 책은 자신이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고, 장애인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해온 고정욱 작가의 창작동화이다. 단란하고 행복했던 평범한 한 가족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다시 옛날의 행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이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현주네 가족은 아빠의 해외연수로 인해 독일에서 2년 동안 생활해 왔다. 이제 아빠의 연수기간이 끝나고 귀국을 앞둔 어느 날, 현주의 아빠는 가족여행을 제안하고, 내키지 않아하는 아내를 설득하여 가족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주의 엄마는 한쪽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엄마, 엄마의 교통사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병을 앓게 된 딸 현주, 자신의 괜한 고집으로 가족을 불행에 빠트렸음을 자책하는 아빠. 비록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은 것은 현주 엄마 뿐이지만 불행의 그늘은 가족 전체에게 찾아온 것이다. 불행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나마 독일에서의 재활치료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재활기관의 수준은 귀국과 동시에 가족 모두를 다시 한 번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주네 가족은 다시 옛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한다. 사회적 편견과 재활치료의 힘겨움을 딛고 현주네가 시도한 첫 번째 싸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장애로 인해 가족 모두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자신의 소중한 과거였음을 인정하며 꿈꿨던 미래가 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겠다는 새 희망을 꾸는 것이었다. 고정욱 작가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현주네 가족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거두고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며 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주제관련도서 : 장애우에 대한 편견 버리기

1. 고맙습니다 / 고정욱 지음, 뜨인돌어린이, 2007.
2. 가방들어주는 아이 / 고정욱 지음, 사계절, 2002.
3. 아주 특별한 우리형 / 고정욱 지음, 대교출판, 2002.



천재를 뛰어넘은 77인의 연습벌레들

박성철 / 다산어린이 / 2006 / 189p.

이용대상 : 초등 전학년

주제 : 인생의 지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_ 이옥화

이 세상에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타고난 재능을 지닌 천재들일까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천재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기 가수 비, 프로게이머 임요한, 축구감독 히딩크, 축구선수 박지성 등 이시대의 리더 77인이 인생에서 건져 올린 값진 성공의 비결과 삶의 지혜를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나를 정확히 알고 도전하는 지혜
2.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지혜
3.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
4.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
5. 생각의 힘을 키우는 지혜
6. 마음의 힘을 기르는 지혜
7. 천재를 뛰어넘은 인생의 지혜 등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술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연습벌레였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1년이고 10년이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듯 천재는 10%의 재능과 90%의 연습으로 이루어진답니다.

나는 왜 천재로 태어나지 못해서 이 고생일까? 왜 이렇게 못났지? 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정신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미래에 성공한 리더가 되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관련도서 : 어린이를 위한 자기계발서

1. 리더: 성공한 위인들의 리더 방법 / 김현민 지음, 아이앤북, 2007.
2. 어린이를 위한 끈기 / 김경민 지음, 위즈덤하우스, 2007.
3.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어 / 이지성 지음, 맑은소리, 2007.



벤은 나와 조금 달라요!

캐시 후프먼 / 스퀴라 / 2007 / 127p.

이용대상 : 초등 5-6

주제 : 공감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_ 정은성

이 책의 원제는 '파란 병의 수수께끼'이며, 아스페르거 증후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한 주인공 벤과 하나뿐인 친구 앤디의 이야기입니다.

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서투르고 종종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버리기도 해 도통 알 수 없는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관계 맺기가 서툰 벤의 유일한 친구 앤디도 학교생활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부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작은 키 때문에 탈락하고, 친구들에게 "꺼지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벤이 자신을 이해 못하는 선생님께 혼이 나고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벌을 받던 어느 날, 벤과 앤디는 둘만의 비밀 장소인 꽃밭에서 파란 유리병을 발견합니다. 유리병의 코르크 마개를 열자 신기하게도 하얀 연기 같은 것이 공기 속으로 퍼져 나갔고, 병 속에 들어있던 요정을 구해준 거라고 생각한 벤과 앤디는 무심코 몇 가지 소원을 빕니다.

그 뒤 가난한 벤의 아빠는 로또에 당첨되고, 농구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앤디는 키가 갑자기 쑥쑥 자랍니다. 하지만 벤이 빌었던 진짜 소원은 따로 있는데... 병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벤을 둘러싸고 있던 갈등도 해소됩니다.

벤을 이해 못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아빠와 할머니도 벤이 앓고 있는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고 나와 조금 다른 친구들에게 귀를 기울여 본다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 조금 다른 친구'에 대해 이해하는 힘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관련도서 : 친구가 최고!!!

1. 날개달린 아이들 / 김혜리 지음, 푸른나무, 2007
2. 하늘을 달리는 아이 / 제리 스피넬리 지음, 다룬, 2007
3. 벤에게 외계인 친구가 생겼어요 / 캐시 후프먼 지음, 스퀴라, 2007



안손 씨의 양복

원유순 / 한겨레아이들 / 2007 / 165p.
이용대상 : 초등 3-4
주제 : 입양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 _ 노보형

요즘 들어 한국사회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해외입양 보다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으로 인해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입양아들의 상처와 입양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안손 씨의 양복』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주인공 민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 바로 해외입양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기였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이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아버지는 가난과 편견을 견디지 못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바로 남겨진 아버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은 자의 아픔, 즉 자식을 입양 보내고 난 후에 후회와 자책으로 여생을 보낸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어, 버려진 자의 아픔 뿐 아니라 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아픔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처 받고 소외된 자들 간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입양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민재와 유괴범으로 몰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양복점 할아버지와와의 관계를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전달하고자 한다.

자식을 머나먼 이국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양복점 할아버지.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잊은 채 반평생을 산 안손 씨. 그리고 둘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준 민재. 한번쯤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건 어떨까?

주제관련도서 : 입양된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1. 열세 살에 만난 엄마 / 이규희 지음, 대교출판, 2004.
2. 겨울 해바라기 / 유영소 지음, 문학과학사, 2005.
3. 나를 찾아줘 / 은이정 지음, 교학사, 2007.



작전 1호 : 왕따와 학교폭력 이겨내기

캐서린 드피노 / 도서출판 해솔 / 2007 / 48p.
이용대상 : 초등 3-4
주제 : 왕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여주분관 _ 전미향

“왕따”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 책은 학교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왕따와 학교폭력의 상황을 묘사하고, 그러한 상황을 부모와 함께 이겨내는 방법과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 책이다.

『작전 1호』의 주인공 스티브는 자신을 괴롭히는 거스에게 차마 대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끄끄 앓고 있다. 주위의 친구들도 큰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선생님도 눈치를 채지만 스티브 본인이 직접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느 날 거스가 보낸 협박 쪽지를 주운 선생님은 스티브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린다. 스티브의 부모님은 스티브와 함께 역할극을 하며, 거스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생각해 내는데 이것이 바로 『작전 1호』이다.

책을 읽으며 아이 혼자서 해결하도록 놔두고, 말기는 게 아니라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지원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며, 아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자꾸 어른들의 문제가 보이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본다.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이 책을 권장하고 싶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주제의 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오길 기도해 본다.

주제관련도서 : 우리교실에는 왕따가 없어요

1. 양파의 왕따일기 / 문선이 지음, 파랑새어린이, 2001.
2. 왕따없는 교실 / 김문주 지음, 문학사상사, 2004.
3. 왕따 남의 일이 아니야 / 베키레이 맥케인 지음, 보물창고, 2007.

Readholic

READHOLIC의 행복한 책읽기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2

김남희 저 / 미래M&B

이용대상: 일반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이용자 _ 유병월

나는 연 날리는 소년이였다

신영길 저 / 나무생각

이용대상: 일반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덕물독서회 회원 _ 김혜숙

(청소년을 위한) 경영의 역사

이재규 저 / 사과나무

이용대상: 청소년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이용자 _ 김영미

여섯 번 저녁 먹는 고양이 시드

잉가 무어 저 / 좋은책어린이

이용대상: 유아4-7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목련회 회원 _ 박은경

오스카는 친구가 필요해

존 스티븐스 저 / 삼성출판사

이용대상: 유아4-7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이용자 _ 김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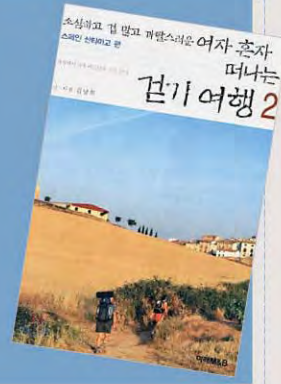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2

김남희 저/미래M&B/2006/302p.

이용대상: 일반

주제: 유럽여행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이용자 _ 유병월



가을은 모든 것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놀기, 여행하기, 책읽기, 차 한 잔 사이에 두고 친구와 수다 떨기.. 우리의 신경을 열어 놓게 하는 가장 좋은 기온이 떠도는 계절이다. 이 좋은 기온에 힘입어 괜찮은 책 한권으로 찐빵의 양꼬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바로 이 책, 김남희의 「걷기 여행 2」 같은...

여행은 '거기로 가는 것'이다. 그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가서 아름답고 치열한,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자잘한 시간에 대한 것까지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준다. 여행의 큰 의미에서부터 현실적인 여행 방법까지 세세한 것을 듣고 있노라면 당장에 가방을 싸고 싶은 충동에 튀는 혈을 누른다. 게다가 심심치 않게 게재되어 있는 사진은 어찌 그리 맑고 투명한지. 그녀의 여행길은 그 길을 걷는 것으로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자그마하고 소심한 그녀가 그 먼 땅의 그 긴 길을 가야만 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들 동감하지 않을까?

“세상 한복판에서 이유도 없는 채 바빠 살다보니 숨이 막히고 고단한 나날들에 지쳤었노라고 그래서 짐을 꾸렸노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 중 그 누가 감히 이 말에 반박을 하겠는가!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한다, 이제는 세상이 진행되어 가는 문명의 방향에 등을 돌리고 살아갈 자신을 얻었노라고.

일상의 토막시간을 길게 꿰매어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미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도 이 가을을 지나간 가을들보다는 더 성숙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20대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갈 이정표를 얻을 수 있는 여정이 될 것이고, 30대에게는 삶의 중간 점검으로 남은 날의 풍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40대에게는 삶의 상승 정지점에서 화려한 꼭짓점을 찍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50대에게는 아직 죽지 않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만을 가져올 여정이 될 것이다. 들어가자 내 안으로!!!

● 이용자의 행복한 책읽기

Readholic

나는 연 날리는 소년이였다

신영길 저 / 나무생각 / 2007 / 247 p.
이용대상: 일반
주제: 바이칼 여행기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덩쿨독서회 회원 _ 김혜숙



중학교 입학 후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이 교실에 오셔서 수업하는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마에 머리카락이 조금 없어지신 지리선생님의 강의가 참 신선했다. 우리 국토의 지형 이야기를 하시며 단군 할아버지께서 압록강을 왜 건너오셨을까, 파미르 고원에서 건너오시며 그냥 드넓은 땅 어디쯤에 자리를 잡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좁은 땅에서 복잡거리고 살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하시면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 외국여행을 하게 될 때 꼭 가볼 곳이 있는데 하시며 바이칼 호수 이야기를 하셨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거려 왜 바이칼 호수를 꼭 가보라 했는지 그 이유는 기억할 수 없지만 가끔씩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이칼 호수는 차고 푸른 물을 내 머릿속으로 흘려보내곤 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친구가 권하여 받아본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바이칼 명상이야기 안내를 보고 신청하려 하였던지 다른 친구들과 집안 식구들이 그곳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며 만류하여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차에, 신영길씨의 「나는 연 날리는 소년이였다」를 망설임 없이 사서 머릿속에만 있던 바이칼 호수의 푸른 물을 눈으로 옮겨 보았다. 책을 넘기니 눈만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게 하여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비록 이 책에서도 왜 바이칼 호수가 우리민족의 시원(始原)과 관련이 있는지 시원한 설명은 없었지만 다시금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였고, 과연 거기가 민족의 영혼의 고향이라 할 만한가 가보고 싶은 유혹을 부추겼다. 책에 실려진 바이칼 사진 한장 한장에서는 저자의 표현대로 태곳적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옛날 우리들 어머니가 장독간에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화수 주발반의 물의 순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 아마도 이런 느낌과 기분이 바이칼 호수를 우리의 시원으로 생각하게 하는게 아닐까 싶다. 바이칼에 가면 숨 쉬는 것마저도 그냥 기도가 된다고 하니 욕심과 욕망에 찌든 우리의 영혼을 차고 깨끗한 물에 행구어서 그 태곳적 호흡을 하게 하는 공기 속에 흔들흔들 흔들어 잔뜩 묻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욕에 티를 하나 잡아내자면 너무 여성스러운 문체가 잠시 저자가 남자인 것을 잊게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을 덮으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적금을 하나 들어야겠다. 바이칼 다녀오게...”

청소년을 위한 경영의 역사

이재규 저 / 사과나무 / 2006 / 356p.
이용대상: 일반, 청소년
주제: 경영사

추천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이용자 _ 김영미



어떤 학자는 이브가 애덤에게 사과를 선물로 주는 행위가 곧 교환거래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물물교환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배고픔이 해결되고 잉여물이 생기면서 교환거래가 시작되었다. 점점 거래 품목은 다양해지고, 거래 지역도 넓어지면서 분쟁을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바빌로니아의 제 6대 왕 함무라비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 에도 가격, 관세, 무역, 통상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고대와 중세,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전시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기업 경영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 속엔 남다른 생각을 먼저 한 창업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삼은 위대한 기업가들의 경영전략 그리고 고객 중심서비스가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은행가들과 상인들은 임종 때 자신들의 고리대금업 행위에 대한 고해성사를 했고, 지은 죄를 사하고 은행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도원 건축기금을 기부했다.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문화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이 정신에 빠질 수 없는 덕목이 되었다.

책을 읽기 전 나는 미약한 소비자일 뿐 기업경영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 중심에 고객인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소비활동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도 알았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이다.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슈머*의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살림하다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로 기업을 시작해 성공한 주부들이 신문에 소개되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William H. Gates), 구글(Google)의 페이지(Larry Page)와 브린(Sergey Brin)을 부러워만 말고 우리도 경영인을 꿈꿔보자.

프로슈머(Prosumer)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인 동시에 스스로 콘텐츠의 제작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섯 번 저녁 먹는 고양이 시드

잉가 무어 저 / 좋은책어린이 / 2007 / 30p.
이용대상 : 4-7세
주제 : 이해



추천인 :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목련회 회원 _ 박은경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릴 쳐다보는 고양이 시드...

쫄긋 선 귀, 꼭 다문 입, 귀엽게 빠친 수염, 노란 눈동자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묻는 듯 도도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 옆엔 여섯 개의 빈 밥그릇이 쌓여 있다.

시드는 아리스토틀 거리에서 사는 고양이이다. 조용한 그곳에서 집집을 돌아다니며 여섯 번의 저녁을 먹는다. 서로 관심과 대화가 없는 아리스토틀 거리 사람들은 시드가 각자 자기의 고양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주는 각기 다른 저녁 메뉴. 그것은 그들만의 사랑방법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방식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가끔은 피곤하기도 하다.

어느 날 독한 감기에 걸린 시드는 여섯 번이나 다른 주인과 병원을 가게 되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 그동안 내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대하던 여섯 명의 주인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시드에게 단 한 번의 저녁을 주기로 한다. 여섯 번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드는 결국 그 거리를 떠나 피타고라스 광장으로 간다. 환한 거리, 서로 정을 나누며 사는 그곳 사람들은 단번에 시드가 여러 집을 오가며 살고 있고 여섯 번의 저녁을 먹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가꾸며 사는 피타고라스 광장 사람들은 여유롭게 시드를 받아들인다.

아리스토틀 거리 사람들과 피타고라스 광장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 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틀 사람들의 무뚝뚝하고 통명한 표정, 피타고라스 광장의 환한 사람들의 표정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조용하게 남에게 관심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더불어 살며 많은 것을 나누고 굳이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도 여유로운 사람들. 생각이 다르므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이들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특히 이 글을 읽을 연령의 어린이라면 자기 것에 대한 욕심과 자의식이 마냥 커나갈 나이다. 뭐든 혼자하고 싶고, 고집부리고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만 하는 나이. 시드라는 고양이를 통해 본 세상은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시드 입장에서 바라보기, 아리스토틀 거리 사람들의 마음 이해하기, 피타고라스 광장 사람들이 시드를 대하는 태도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과 나누는 기쁨을 배우지 않을까?

오스카는 친구가 필요해

존 스티븐스 저 / 삼성출판사 / 2003 / 30p.
이용대상 : 4-7세
주제 : 친구



추천인 :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이용자 _ 김연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3세에서 6세사이의 아동은 주도성 대 죄의식의 단계로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놀이를 주도하려 하며, 경쟁에 몰입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면 자기주도성을 확립하게 되고, 실패의 경험이 많을 경우 위축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흔히 겪게 되는 자기주도적 행동으로 인한 다른 친구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책 『오스카는 친구가 필요해』 한 권이 관심을 끈다.

오스카는 엄마랑 단 둘이 산 속에 살고 있기에 항상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는 올리라는 새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놀이를 함께 하려고 한다. 하지만 올리는 오스카의 놀이에 재미있어 하지 않고 매번 집으로 가버린다. 오스카가 새로운 친구를 빨리 사귀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번 친구가 싫어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날 밤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그 다음날 어김없이 친구 올리를 찾아가 놀자고 시도하는 오스카. 결국은 엄마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겁게 함으로써 행복해 하는 긍정적인 결말을 가져온다.

한두번 시도하다 그만둬 버리고 혼자 놀거나, 어떻게 해야 친구를 잘 사귄다 수 있는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휘청휘청, 획, 광광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리듬감이 있고,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유아에게 읽어주어도 흥미로워 할 만하다.

오스카가 올리와 함께 미끄럼틀, 나무타기, 숨바꼭질, 수영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묘사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놀이를 통해 친구를 사귀면서 갖게 되는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수확이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들에게도 친구 사귀는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공자(孔子)님의 독서방법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
아동문학가 연구인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금언 중에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란 말이 전한다. ‘남자란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말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독서의 교육성을 일깨워 온 말이다.

두보(杜甫)의 시에 처음 등장하는 이 말은 원래는 장자(壯者)가 혜시(惠施)의 집에 가서 책이 많음을 보고 감탄하여 한 말인데, 두보의 시(詩) 이후에 공자가 자신의 글에 인용하면서 널리 인구에 회자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다섯 수레의 책이란 얼마만큼의 분량일까? 천 권쯤 될까? 이천 권쯤 될까? 당시의 책이 댓조각을 엮어서 글씨를 판 죽간(竹簡)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섯 수레에다 가득 채운다 해도 몇 백 권 정도였을 것이다.

공자님이 책을 읽을 때에, 어찌나 여러 번 읽었는지, 죽간을 묶은 가죽 끈이 서너 번 씩 끊어지는 것이 예사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 일화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하도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책장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말쯤 된다. 이 사건을 놓고 추리력을 동원해 보면 공자님의 독서방법을 짐작하게 된다. 추리를 계속해 보면, 공자님은 그런 독서방법으로 인하여 독서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불과 몇 백 권의 책 밖에 못 읽었을 텐데도 그렇게 풍부한 앎과 높은 혜안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도 성적이 시원치 않은 아이들이 있다. 이럴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다. 그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기 보다는 책임기 능력이 부족할 뿐이다.

한국독서교육개발원(KREDI)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60만 명의 독서능력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어휘력, 이해력, 비판력이 낮은 학생군이 공부를 싫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책을 보면 머리가 딱딱 아프다고 한다. 이것은 그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공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능력이 낮아서 책임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능력 중에서도 어휘력이 부족하면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잘하면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좋아하면 잘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서능력과 공부에도 적용된다. 독서능력이 높으면 책읽기가 즐겁고, 공부가 즐겁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독서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딱딱 이플 수밖에 없다. 또 이해력이 부족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상하거나 추리하는 과정, 비판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없어서 독서의 진짜 재미를 모르게 된다.

잘하면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좋아하면 잘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서능력과 공부에도 적용된다. 독서능력이 높으면 책읽기가 즐겁고, 공부가 즐겁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독서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586컴퓨터를 타자기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같은 컴퓨터로 눈부신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있다. 대충대충 읽는 아이들, 얼렁뚱땅 읽는 아이들, 책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책을 읽으며 계속 뒷장을 들추어 보는 아이들, 어휘력과 상상력이 부족하여 만화책만 읽으려는 아이들은 공자님을 따라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천천히 읽기를 습관화 하는 방법에 '질문의 방법' 이 있다. 질문 중에서도 기억력을 통하여 나오는 질문이 아닌 사고과정을 통하여 나오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소나기〉를 읽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은 책 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며 ‘이 바보!’ 라고 말했는데, 그 ‘이 바보’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을까?”

“소녀가 징검다리에 앉아 물속의 조약돌을 건져냈는데, 그 물의 깊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질문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자극하여 지적 쾌감을 만족시켜준다. 그리고 덩으로 얻게 되는 것이 생각하는 습관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책 읽는 속도가 늦춰지면서 공자님처럼 읽게 된다.

독서지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www.kredil.co.kr (클래들)

www.umjibook.co.kr (사이버독서학교 - 엄지북)



사서선생님과 함께 읽는 그림동화책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어린이실 담당사서 조선희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로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밋밋한 플롯에 그저 예쁘고 감상적인 이야기이거나 단순히 교훈을 주입시키고 있을 거라는, 참으로 사서답지 않은 부끄러운 편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처음 어린이책을 읽게 된 이유도 원해서가 아니라 어린이자료실 담당사서로서 업무의 연장이란 생각에서였다. 아동문학 이론서들을 먼저 읽기 시작했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동화책과 그림책들을 읽어나갔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읽기 시작한 어린이책들은 내가 갖고 있던 어쭙잖은 편견을 비웃듯이 폭넓은 주제와 방대한 양, 정교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나를 놀라게 했다. 거기에 푹 빠져서 스스로 열렬한 독자가 되어 즐기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그림책은 나에게 있어서는 뜻밖에 발견한 신천지와 같았다. 그리고 '그림책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또하나의 기준이 생겼다. 온갖 종류의 그림책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요즘 아이들이 부럽기 짝이 없다. 그림책을 읽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나의 어린시절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그림책들을 접할 수 있었더라면 괴롭기만 하던 미술시간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처음 읽은 그림책은 밝은 파스텔톤의 색감이 예뻐서 집어들게 된 존 버닝햄의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였다. 솔직한 첫 느낌은 “이게 뭐야.”였다. 그림도 그저 쓱쓱 손가는 대로 그린 것 같고 내용은 단순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아저씨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 위에서 소란을 피우다 배를 뒤집어 었은 동물들이 야단을 맞거나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아저씨에게 다음에 또 배를 타자는 초대장을 받으며 다함께 즐겁게 차를 마신다. 이 대책없는 낙관주의라니.

그 단순한 반복패턴은 유아들 대상도서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각 동물들의 특징을 자연스레 알려주고 있었음을 깨달게 된 것은 여러 그림책들을 접하고 난 뒤의 일이다. 그리고 존 버닝햄이 전세계 어린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림책의 맛(?)을 알아갈 무렵 그림책 읽어주는 상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시간씩 그림동화방을 찾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도서관 사서들이 돌아가며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도서목록을 짜고 홍보를 하는 틈틈이 사서들끼리 연습도 했다. 평일 오전이라 참여하는 어린이가 많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왔다가, 혹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면서 목요일만 되면 엄마 손을 잡고 꾸준히 그림동화방을 찾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이 한시간이나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읽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도 있다. 책은 사서가 미리 선정한 것과 즉석에서 아이들이 골라온 것을 번갈아 읽는다. 책을 읽고 나서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접기, 스티커 등을 이용한 간단한 독후활동을 함께 하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것은 즐겁고도 특별한 경험이다. 문자에 익숙한 성인들과 달리 아이들은 그림을 먼저 본다. 글자에 중독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 속 수수께끼를 어린이들은 잘도 찾아낸다. 그림 속에 얼마나 많은 재치와 유머와 풍부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서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동화책’이란 프로그램이 벌써 1년을 채웠다.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어린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제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 ‘사서선생님과 함께 읽는 그림동화책’으로 말이다.



사서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동화책

언 제 매주 목요일 10:30 ~ 11:30
어 디 서 어린이자료실 내 그림동화방
누 가 사서선생님이
누구에게 그림책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어 뭇 게 그림책도 읽어주고, 종이접기,
스티커를 이용한 독후활동도 하고

겨울에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동화책

장갑

우크라이나 민화, 에우게니 M. 라초프 그림 / 한림출판사

겨울을 준비하는 가게

후쿠자와 유미코 글 · 그림 / 한림출판사

크리스마스 선물

존 버닝햄 글 그림 / 시공주니어

있잖아요, 산타 마을에서는요...

가노 준코 글, 구로이 켄 그림 / 길벗어린이

눈사람

안데르센 원작, 오현아 그림 / 종이나나라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즈 글 그림 / 마루별

퀵트 할머니의 선물

제프 브럼보 글, 게일 드 마넨 그림 / 홍성사

눈의 여왕

안데르센 원작, 키릴 첼루슈킨 그림 / 웅진주니어

못 말리는 먹보 곰

실비 오자리 루통 글, 안네 벨그 그림 / 토마토하우스

우리끼리 가자

윤구병 / 보리

코를 킁킁!

루스 크라우스 글, 마크 사이먼트 그림 / 비룡소

눈속에서 길을 잃고

이안 백 글, 그림 / 웅진닷컴

눈 오는 날

에즈라 잭 키츠 글, 그림 / 비룡소

눈 오는 날의 생일

이와사키 치히로 글 그림 / 프로메테우스

겨울이 오면 동물 친구들은 무얼 할까?

조제트 공티에 글, 나탈리 슈 그림 / 빼아제어린이

노란 스웨터

혼다 도요 쿠니 글 그림 / 언어세상

얼음 낚시는 즐거워

야마시타 하루오 글, 이와무라 키즈오 그림 / 꿈소담이

아랑귀신

이춘희 글, 한병호 그림 / 언어세상

설빔

배현주 글 그림 / 사계절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채인선 글, 이억배 그림 / 재미마주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

데지마 게이자부로 글 그림 / 보림

뜨개질 할머니

우리 오를레브 글, 오라 에이탄 그림 / 문학동네

호두까기 인형

호프만 원작, 돈 데일리 그림 / 리틀랜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지역교육청이 손을 잡았어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_ 도서관지원담당

경기도교육청이 공공도서관과 지역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에 나섰다.

지식정보사회의 국가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립도서관이 축적한 양질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인력 상호지원 및 확충, 도서관 콘텐츠 확충 및 상호지원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립도서관별 이용봉사대상 거점 지역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명품 프로그램 발굴 및 브랜드화로 교육인적자원부의 2단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벌인다.

주요 추진과제는 경기도립도서관 중 규모가 큰 도립도서관(중앙, 성남, 과천)을 중심으로 지원협력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모델과 지원모델 및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과 함께 하는 열린 방과후 프로그램], [행복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책으로 읽고 답사로 만나는 우리문학캠프] 등 15개 교육청과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손을 잡고 12개의 사업을 펼쳤다.

2008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지원 자문단 운영]을 비롯하여 [도서관 강사풀제 운영], [독서치료를 위한 멘토링제 운영] 등 다각적 연계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모델로써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앞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교육 발전에 한몫을 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도서관별 지원협력 네트워크 체제

중앙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용인, 안성, 이천, 여주

성남

성남, 구리, 광주, 하남,
양평,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연천

과천

과천, 안양, 안산, 의왕, 군포, 부천,
광명, 시흥, 고양, 김포, 파주

2007년도 추진사업 >>

번호	주 관	협 조	분 야	대 상	사 업 명
1	수원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방과후학교	학생(중등)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열린 방과후 프로그램
2	성남교육청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독서교육	학생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 초등 : 학교도서관에서 워크북 독후활동으로 놀자 • 중등 : 독서논술로 떠나는 근현대문학의 이해 • 사서, 학부모도우미 : 멘토·멘티제로 학교도서관 100% 활용하기
3	광주하남교육청	경기도립광주분관	독서교육	학생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독서캠프
4	안양교육청	경기도립과천도서관	독서교육	학부모	초등 학부모도우미 빛그림 이야기 연수
5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교육청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연수	담당사서	학교도서관 담당자 독서논술과 독후활동 프로그램 연수
6	포천교육청	경기도립포천분관	독서교육	학생·교사	즐거운 독서, 포천에서 시작됩니다
7	김포교육청	경기도립김포분관	독서교육	학생	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
8	화성교육청	경기도립발안도서관	독서교육	학생	이젠 나도 지식의 샘
9	평택교육청 안성교육청	경기도립평택분관	독서교육	학생(중등)	책으로 읽고 답사로 만나는 우리문학캠프
10	군포의왕교육청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기타	학생(초등)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 인형극 순회공연
11	여주교육청	경기도립여주분관	기타	학생(초등)	도서관은 내친구(동화구연, 인형극)
12	구리남양주교육청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방과후학교	학생(초등)	방과 후 활동 동화구연

15개 교육청 10개도서관 12개 사업

● 함께가는 도서관

추진사업 이모저모

수원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학교도서관과 함께 하는 열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총4학교
프로그램: 토론과 함께 하는 생각 키우기
신문(NIE)과 글쓰기
창의적인 NIE 논술교실
다양한 담론을 통한 삶 읽기



성남교육청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대상: 초등, 중등, 사서, 학부모도우미
프로그램: 독서 · 논술로 떠나는 근현대문학의 여행
멘토 · 멘티제로 학교도서관 100% 활용하기
학교도서관에서 워크북 독후활동으로 놀자



평택교육청 • 안성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책으로 읽고 답사로 만나는 우리문학캠프

대 상: 중학생 및 교사

기 간: 2007.10.27.~10.28. (2일간)

일 정: 사전강연회(작품에 대한 특강 및 영상물 시청)

이효석문학관 → 무이예술관 → 김유정문학촌



안양교육청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초등 학부모도우미 빛그림 이야기 연수

대 상: 학교도서관 학부모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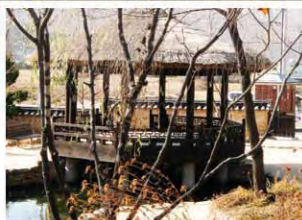
기 간: 2007.11.6.~ 12.13.

내 용: 빛그림을 통하여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독서습관을 형성시킴.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독서지도 세미나

가평에서의 1박 2일, 행복한 동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_김정미

11월... 늦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갈 무렵,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가족들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여행길에 올랐다. 경기도 구석구석에 흩어져 일하고 있기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가깝고도 먼 동료였던 우리는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통해 사서로서의 전문성도 키울 수 있었고,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건넬 수도 있었으며, 또 전보다 더 많이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게 되었다. 가평으로 가는 나의 발걸음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동행으로 더욱 가볍고, 가슴은 행복으로 젖어들었다.

김유정 문학촌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문학의 쉼터에 도착한 것은 차에 오른 지 두 시간 남짓 지났을 때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들어보았을 만한, 우리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 김유정. 혹시 김유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의 작품인 ‘봄봄’과 ‘동백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김유정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대한 시무국장님의 맛깔스러운 해설에 우리는 넋을 잃고 ‘김유정’이라는 인물에 푹 빠졌다, 해설이 다 끝나고 나오는 길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을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랑받는 고전은 그만한 가치가 책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으로 우리의 독서목록에서 제외되는 고전들을 다시 한 번 펼쳐보는 것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커뮤니케이션 특강 구불구불 호숫가의 길을 따라 정취에 흠뻑 젖을 즈음 도착한 가평 수덕원...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맞이해 주신 분은 커뮤니케이션 특강을 맡으신 교수님이었다. 처음 뵙는 분이지만 34권이나 되는 저서를 집필하신 수필가이기도 하시다는 말씀을 듣자 왠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다. 커뮤니케이션, 즉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용자와 항상 함께하고 대화해야 하는 사서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개발해 나가야 할 직업적 능력이기도 하다. 3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상황들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대화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내용이었다. 진심이 담겨있는 한마디 말은 그 어떤 기교와 기술로 포장된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닐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한다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토론의 시간은 가평에서의 첫날 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조별로 함께 모여 선정된 몇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함께 했다. 사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반가운 얼굴들이라 보니 본의 아니게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된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였던 시간이었다. 사서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책과 도서관에 관한 고민과 이야기들... 가평에 와서도 역시 직업의식은 이렇게 발휘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하는 지금의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새삼스레 솟아났다.



청평사 가평에서의 하룻밤이 지난 후 들른 그 곳. 소양호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오봉산 기슭에 자리한 청평사는 고려광종(973)때 영현선사가 처음 세운 사찰로 사찰을 주변으로 한 빼어난 경관의 정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날씨는 너무나 추워서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있을 정도였지만 운치 있는 경관과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계곡의 물소리가 어우러져 겨울 초입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낭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전날보다 더 추워진 날씨에 몸은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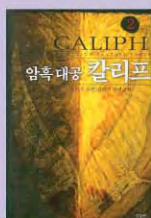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나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시간이었지만 중앙도서관과 5개 분관 사서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한 해 동안의 '사서와 함께 책읽기' 사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들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보는 시간이기도 했으며, 앞으로 계속 함께 일할 동료들과의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서로서의 여러가지 일들을 위한 지식과 에너지를 한가득 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직업과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람들과 책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서라는 내 직업, 책과 정보로 가득한 내 일터인 도서관에 감사했다. 그리고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에 실린 부끄럽기만 했던 내 추천글들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 한권을 건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사람과 책을 더욱 가깝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화이팅!!!

일반



중앙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길들여지지 않는 아내	윤 주	신영미디어
2	비. 1, 2	진	조은세상
3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1	정은길	파란미디어
4	스틸 하트	지우란	북박스
5	운 향	홍 예	발 해

평택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식객. 12	허영만	김영사
2	마 왕	이사카 코타로	웅진지식하우스
3	고마워요 소울메이트	조진국	해 념
4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김주하	랜덤하우스코리아
5	죽음을 연구하는 여인	아리아나 프랭클린	웅진지식하우스

포천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나비아 청산가자. 1	김진명	대교베텔스만
2	죽은 고양이가 사용설명서	사이먼 본드	거 름
3	이근철 영어랭킹. 1	이근철	랜덤하우스코리아
4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다브	김영사
5	지식을 경영하는 전략적 책읽기	스티브 레빈	밀리언하우스

김포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암흑대공) 칼리프. 2	박민우	마 루
2	(해리스 포도) 도망자. 1 : 도망, 시작	임진광	청어람
3	엠펜러나이트. 5	김광수	발 해
4	특목고 우리 아이 이렇게 보냈다	박은주 외	맹모지교
5	(떨기공주의 토크 튀는) 아이디어 밥상	이은미	성안당.COM

여주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천안문의 여자	산 사	현대문학
2	5달러 이야기	장재평	에버리치홀딩스
3	(소설 김삿갓) 비람처럼 흐르는 구름처럼	이 청	경 덕
4	(자동차 세상 속으로) 변해라 그래야 산다	김필수	골든벨
5	주작의 제국. 1	원정미	마 야

광주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커피프린스 1호점	이선미	눈과마음
2	(만화) 토지. 1권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3	남한산성	김 훈	학교재
4	시크릿	론다 번	살림Biz
5	독소 소설	히가노 게이코	비움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손오공의 한자 대탐험) 마법천자문. 13	시리얼	아울북
2	(메이플스토리 힛타지) 영어소환마법서. 3	강 철	북 스
3	빈대가족의 짬돌이 100계명	박세열	재미박스
4	WHY? : 교통수단	이의정	예림당
5	인도에서 보물찾기	곰돌이 CO	아이세움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머리가 좋아지는) 탈무드	김용란	중앙M&B
2	(어린이를 위한) 선택의 기술	박종하	청 솔
3	(반짝반짝) 탈무드 지혜. 1	문삼석	아동문예
4	(박물관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로드 클레멘트	풀 빛
5	기 도	바른사편집부	바른사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고양이	현 덕	길벗어린이
2	여우누이	김성민	사계절
3	할아버지와 숨바꼭질	롭 루이스	보 림
4	내 이름은 나답게	김향이	사계절
5	귀엽지 않은 내 동생	하마다 케이코	한울림어린이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뿌까의) 신나는 세계모험. 8: 〈유럽〉 영국편	김철희	부즈뎀
2	(메이플스토리) 영어소환마법서. 2	강 철	북 스
3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쁜 걸(girl)이 되는 법	김언정	학산문화사
4	친구를 이끄는 적극적인 아이 & 친구를 따라가는 소극적인 아이	김현숙	글송이
5	(헛나만의) 비밀 다이어리	박지완	능 인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초등학생도 알면 세상이 보이는 역사상식 200가지	한교원	능 인
2	Ham and Pickles : first day of school	Nicole Rubel	Harcourt
3	큰턱사슴벌레 VS 큰뿔장수풍뎅이	장영철	스콜라
4	(동화로 보는) 꼬마애견 미용사	문옥주	가가M&B
5	고릴라의 수호천사, 다이안 포시	김정홍	뜨인돌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공룡 세계에서 살아남기	코믹کم	아이세움
2	(신나는 수학공부) 수학의 신들	정수연	한 언
3	주 몽	이하나	학산문화사
4	아주 아주 큰 고구마	아까바 스에끼찌	창 비
5	365일 냉장고 영어	기탄교육	기탄출판

중앙

평택

포천

김포

여주

광주

어린이



● **찰각! 책읽는 풍경**

2007년 10월...

풍성한 읽을 거리, 볼거리로 가득했던 '학교도서관 축제' 그 현장 속으로 go go!!!

수원시교육청

2007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날짜: 2007. 10. 6. (토)

장소: 수원시교육청

주요행사

프로그램공모전, 여우책만들기,
독서퀴즈, 책광고,
사진빨리찾기, 원화전시,
주인공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하루 등



고양시교육청

고양 학교도서관 책축제 한마당

주제: 즐거운 독서, 가고 싶은 도서관

날짜: 2007. 10. 24. (수)

장소: 노래하는 분수대(호수공원내)

주요행사

- 전시 180점
(우수독후활동물, 학교도서관지랑, 인기도서 등)
- 독서체험: 25개
(북아트, 퍼즐따라 책속으로, 나만의 책갈피 등)
- 도서관화, 책읽는 거리
- 특별행사(공연, 인형극 등)



평택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책축제

주제: 신나는 책읽기, 행복한 학교도서관

날짜: 2007. 10. 26. (금)

장소: 청소년문화센터 강당 및 야외 행사장

주요행사

- 공연: 사물놀이, 인형극
- 전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진, 독후활동 작품, 가족독서신문
- 체험활동:
가방만들기, 책나팔을 붙여요, 거침없이 맞춰봐 등
- 작가와의 만남: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의 저자 박영숙





쉼터

화장실을 WC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화장실은 영어로 토일렛(toilet)이다.
그런데 'WC'라고 표기한다. 이 WC는 어디서 따온 것일까?

WC는 워터 클로젯(Water closet)의 약칭이다. 물론 영어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영어권에서는 화장실을 대부분 이렇게 표시해 놓았다. 단,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어권에서도 WC를 사용한다는 것. 프랑스인이 왜 영어를 쓸까? 그 이유는 역시 프랑스인답다.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즉 화장실을 표현하는 데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기 아까워서 그냥 영어를 쓴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낼 정도로 프랑스인의 자존심은 강하다.

출처: 천하무적 집학사전, 2/ 엔사이 클로넷 지음, 좋은생각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상의 바쁨에
잠시 잊고 있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는 건
자연은
아주 작은 변화마저 감동이다.

심장이 차가워질 틈없이
내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이끌어주는 책처럼...

자연은 언제나 내게 휴식이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재미있는 우리말 ㅋㅋㅋ

라면과 참기름은 정말 친한 친구사이다.
그러던 어느날 참기름과 라면이 엄청 싸웠었다.
그런데 경찰이 라면만 잡아가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다음날 참기름도 잡혀갔다.
왜 그랬을까?

"잡혀간 라면이 붙어서"

팡!팡! 쏟아지는 경품받자



책에 관한 퀴즈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후 68년 사이에 씌어진 고대 세계 最古 성서로서, 2000년 동안 사해 근처 동굴에 감춰져 있다가 1947년에 발견된 비밀의 문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특별전시장에서 '○○○○과 그리스도교의 기원' (www.scrolls.co.kr)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직지심경 ② 구약성서 ③ 사해사본 ④ 팔만대장경

응모방법 www.gglib.or.kr ➡ 오른쪽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책에관한이모저모' ➡ '책에관한퀴즈' 클릭!

HINT www.gglib.or.kr ➡ 오른쪽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책에관한이모저모' 클릭!!!
(11월 말 정도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보시면 정답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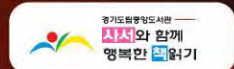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창간호 퀴즈 당첨자

최승미	용인시 처인구	유채림	수원지 장안구 연무동	박애정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김은영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김가민	평택시 동삭동	배승란	포천시 신북면
정인용	김포시 사우동	김혜경	안양시 만안구	서해진	광주시 경안동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함께 공유해요!!!

추천도서 및 도서관 관련 우수 운영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자 원하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보내주시며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

- 특별기고 : 교육계 · 지역 주요인사, 기관장 등이 권하는 책
-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권장도서목록 등
- 이용자미팅 : 독서,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글
- 기 타 : 독서정보지 기사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사항, 좋은 아이디어 등.

문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과 031)240-4031, lib416@empal.com,
http://www.gglib.or.kr ➡ 우측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www.gglib.or.kr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사서가 말하는 도서관이란... 사서가 말하는 사서란...

선배가 해주고 싶은 말, 후배가 하고 싶은 말

김포도서관 김지연

신이 주신 최고의 직장은 바로 도서관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평택도서관 문영순

“생각하는 것 서로 나누고, 함께 이루어 가자”
우리 사서들은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하고 나누었던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것 같다. 좋은 생각들을 좋은 결실로 많이 맺어내는 선배와 후배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평택도서관 박혜영

열정사서! 선배님들이 있기에 후배들은 힘이 불끈 납니다요

중앙도서관 유승림

양손에 목장갑을 끼고 하루종일 먼지를 마시며 책을 나르던 날, 5분의 달콤한 휴식시간에 눈에 띄어 쌓여있는 책들이 꼭 내 지식처럼 느껴질 때, 문득 '내가 사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습니다.

김포도서관 안선영

책으로 빼곡이 채워진 서가들이 가득 들어찬 도서관이 어린시절 나에게 현실과 멀어질 수 있는 꿈과 상상의 공간이었다면... 매일매일의 일상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제멋대로 끝없이 쌓여있는 책들과 소리없는 전쟁을 치른다!

여주도서관 김상미

김상미 사서 남편 왈... “도서관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 왜냐구?
사서 남편도 행복한 주말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여주도서관 전미향

사서는 백조 같다. 조용하고 우아한 겉모습 밑에 숨기쁜 발짓...

포천도서관 이미경

‘사서’라는 이름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일을...’ ‘의사, 약사, 변호사처럼 사서라는 고유명사가 주어진 것은 분명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어서인데...’
사서 고유의 전문성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그냥 물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해야 하는지 생각에 잠긴다. 사서의 고유명사가 후대에도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후자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주도서관 최혜숙

도서관은 흐르는 강물이다. 항상 새로움이 넘치고 활기차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꿈이라는 넓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곳이다.

Librarians

BC 3세기경에 실재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AD 21세기! 앞으로도 쭉쭉~ Library를 Library라고 부르며 Librarian으로 남고 싶습니다.

※ 가평에서의 1박2일, 행복한 동행 때 나는 사서들의 이야기입니다.

